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가 추구하던 전주미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탄핵으로 뜨거워진 재외국민 대선 열기

5월 9일 대선 확정으로  
30일 재외선거 등록 마감  
10~16일 7만여명 신청해  
벌써 18대 대선 31% 달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탄핵으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6일 동안 7만0612명의 재외선거인 등이 신고·신청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등재자수인 22만2389명의 31.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귀국투표 보장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방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과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위는 전했다.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해 보름 정도의 기간만 남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위는 재외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발 맞춰 대면접촉,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홍보 ▶▶3면으로 계속

## 의회예산국 공식발표, 2천4백만명 보험 잃는다

4년 내 2천 1백만명, 10년 내 2천 4백만명 무보험자 양산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 삭감으로 8천8백억달러 절감  
보험료도 내년 15-20%인상, 50-64세 저소득층 최대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공화당 건강보험안이 현재대로 제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2천4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정부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에 추구하던 전주미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험자율을 2026년 10% 전망치에서 19%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50세에서 64세의 저소득층은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믿을 수 없다” 며 바로 부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 보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메인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하원 공화당 안이 통과될 경우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는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 항공권 \$899~

향년 47주년

한국행 항공권 패키지! (미국-일본 직항)  
도쿄 시내 호텔 3박, 한복 공연리뷰인력스, 도쿄일일관광  
\* 월리는 일일후도 게스트하우스 기준 (1인 기준 12인일 사용가능)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고객서비스  
Eileen Park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REMIEREALTY.COM

# 많이 부풀려진 눈폭풍, 4만7천여가구 정전

비로 바뀐 눈으로 인해 적설량 대폭 줄어  
빙판길 얼은 눈으로 힘든 제설작업 고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월 14일 보스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에 들이닥친 초대형 노이스터(Nor' Easter)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 및 학교가 문을 닫고 업소가 휴업했으며 주 동북부 매리맥 벨리 인근 4만7천여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이번 눈폭풍은 보스톤 인근 대부분의 지역에 18인치의 폭설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눈이 비로 바뀌며 훨씬 적은 눈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 매사추세츠에는 18인치의 눈이 내렸다.

로건 국제공항에 기록된 보스톤 지역을 비롯한 동부 매사추세츠는 6.6인치로 비교적 양호한 적설량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풍은 최고 시간당 79마일로 부는 등 거셌다.

비로 인해 적설량은 크지 않았지만 눈이 비로 변하고 다시 얼어붙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눈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4일 밤 10시까지 총 4만 7천여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대중교통 이용은 평일의 75%가 줄었다. 보스톤 북쪽 인접 타운인 몰든과 메드포드의 정전사태로 인해 오렌지 라인의 승객들은 오후 상당한 열차 지연사태를 감내해야 했다. 로건 공항은 14일 하루동안 800여대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로렌스에서는 블리자드 상황이 발생했다. 블리자드 상황은 바람이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불고 강한 눈이 내려 시야가 25마일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hsb@bostonkorea.com



3월 14일 보스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에 들이닥친 초대형 노이스터(Nor' Easter)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 및 학교가 문을 닫고 업소가 휴업했으며 주 동북부 매리맥 벨리 인근 4만7천여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제네시스 비비큐 보스턴 진출 기념 행사 가져

## 10일 엄총영사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 초청 내부단장 및 준비 끝 다음주 초 오픈 예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에 입성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 비비큐(BBQ)가 그랜드 오픈에 앞서 3월 10일 금요일 보스턴 지역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 보스턴 진출기념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네시스 비비큐 윤홍근 회장과 한국 및 본사 셰프들이 참여해 비비큐의 대표 메뉴를 초대손님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 김경원 한인 회장 대행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윤홍근 회장은 맥도날드의 매출을 능가하는 기업을 목표로 "2020년까지 미국에 1만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걸쳐 5만개 매장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거점 확대의 주요 교두보로 미국 슈퍼마켓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주요 마트와 손잡고 매장 5,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한 크로거, 500여개 매장을 가진 스타마트, 60개에 달하는 H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미국이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하지만 BBQ의 경쟁력은 KFC와 비교해 월등하다고 자부한다"면서 "40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고안한 1,500개 메뉴와 BBQ의 높은 수익성, 빠른 점포 확장능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스턴 진출 행사에서는 태권도 패스티벌을 주관하는 김경원 회장 대행과 협력을 논의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한인 사회에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비비큐 올스톤 점은 모든 내부공사를 마치고 다음주 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재외국민들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 열기 고조

▶▶1면에 이어서  
를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대면접촉 홍보를 실시하고 △국외송출 위성방송이나 한인 TV·라디오 방송사를 통해 홍보CF를 방영한다. 선관위는 이번주부터 2주에 걸쳐 재외선거인 등록 광고(본보 31면)를 게재한다.

또한 △인천공항에 대형 배너를 설치하고, 서울 트레인 승강장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 △국내 항공사의 국제노선에 기내광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매체에도 국가별·성별·연령별로 맞춤형 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투표소도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4개의 파병부대 등 총 204개가 설치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해 재외선거인들의 신고·신청기간과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기간이 짧아지고,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없어진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공관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pej86@new1.kr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에 입성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 비비큐(BBQ)가 그랜드 오픈에 앞서 3월 10일 금요일 보스턴 지역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 시식회를 가졌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JULY 10 - JUL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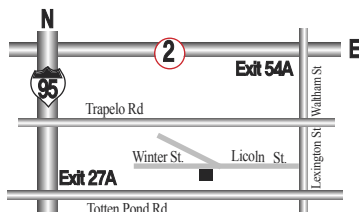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음악가가 인터뷰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3월 26일 캠브리지 론지 음악스쿨 피아노 독주회  
 “딱딱하지 않고 재밌고 편안하게 즐기는 연주회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언론들이 극찬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24)가 오는 3월 26일에 보스톤 독주회를 개최한다. 찰리 올브라이트는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한 많은 한인 매체와도 인터뷰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성악가이자 한미예술협회의 홍보 디렉터인 이상원 본지 객원기자가 그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하버드 대학교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변화경 교수의 사사를 받아 보스톤과 깊은 인연이 있다. 길모어 영아티스트 어워드,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독일의 루르 클라비어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어워드 등을 수상한 그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음악가’ (워싱턴 포스트), ‘입을 벌이지게 하는 테크닉과 기교, 탁월한 음악성의 결합’ (뉴욕 타임즈)이라는 주요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인터뷰 정리 및 번역: 이상원)

Q: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연주자로 살게 된 것이 2-3년 정도 되었다. 그 동안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을 느꼈나?

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많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 하버드와 뉴잉글랜

드 컨서버토리(NEC)에 재학 중일 때 변화경 교수님과 피아노를 공부했는데, 주말에는 연주 투어가 많았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연주하고, 호텔 방에서 이메일로 숙제를 제출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졸업 후 뉴욕으로 옮겨서 줄리어드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있을 때에도 계속 연주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연주를 많이 한 덕분에 졸업 후 직업 연주자로 넘어가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평소 스케줄에 좀 더 여유가 있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비행기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다. (웃음)

Q: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온 것으로 안다. 음악 외에도 고교 시절에 이미 센트랄리아 대학교에서 과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과 프리메드를 전공했다. 어떤 이유로 음악 외의 다른 분야도 공부했던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음악을 택하게 된 이야기도 듣고 싶다.

대학을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음악은 3살 때부터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 그렇지만 가정 형편도 그렇고,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어



언론들이 극찬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24)가 오는 3월 26일에 보스톤 독주회를 개최한다

떤 선택을 하든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음악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다.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행운이나 하나님의 축복 등 자신의 노력이나 통제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 음악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다.

의학(아마 제 아버지 때문인 것 같지만)과 경영학은 언제나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다. 그리고 하버드와 NEC학사/석사 통합 과정에 많

은 관심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클래식 피아니스트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영광이었다. 의예과(Pre-Med)의 필수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센트랄리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며 이미 들었던 과목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버드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NEC에서는 음악을 공부했다.

NEC에서 학교를 마칠 무렵에 월 스트리트에서 여름 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하며 비즈니스의 세계도 경험을 했는데 드디어 의학, 비즈니스, 음악 중 무엇에 집중할 >>5면으로 계속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확한 성분은 정관장 최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홍삼정 30g  
 천복삼 30g  
**무료선물**

정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허연근 홍삼의 만남

**용솨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혈액순환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대우님에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4면에 이어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 그때까지 결정을 최대한 미뤘었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다. 의학이나 비즈니스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음악에는 열정(Passion)을 가지고 있었거다. '관심'과 '열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Q: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나? 연주자로서 어떤 곡 또는 작곡가를 좋아하나? 앞으로 연주하고 싶은 레퍼토리는 어떤 것들인가?

피아노는 엄청나게 특별한 악기이다. 다른 악기 소리를 모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케스트라의 소리까지도 연출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악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피아노만의 음색으로 감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변화경 교수님께 배우면서 저는 무제한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피아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변 교수님은 저에게 이 악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마치 마술 같았다. 예술에 대한 그분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을 멘토로, 또한 친구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

저는 감정을 전하는 곡들을 좋아한다. 행복, 간절함, 위대한 승리 등의 다양한 감정을 다른 무엇보다도

큰 방식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와 작품은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저는 베토벤과 쇼팽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



Q: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Charlie Albright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고등학교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있는 센트랄리아 컬리지에서도 수업을 듣고 2007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몇 년 전에 좋은 콘서

트 홀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피아노가 작고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센트랄리아 컬리지 재단과 함께 새로운 피아노를 구매하는 계획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보스턴에서 '찰리 올브라이트 피아노'와 '찰리 올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모금 콘서트를 통해 9피트 크기의 스타인웨이 새 피아노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모았고, 악기보수관리와 센트랄리아 컬리지에서 음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다. 다음번 모금 콘서트는 4월 8일로 계획되어 있다.

Q: 이번 보스턴 연주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들려 달라.

오는 3월 26일에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주최로 론지 음악대학에서 독주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직접 무대에서 연주할 곡들을 소개할 것이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 관객들에게 원하는 음정을 물어봐서 그것으로 주제를 만들어 즉흥연주도 할 것이다. 딱딱한 연주회가 아니라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연주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보스턴에서 좋은 분들을 많

이 만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6월 25일에 락포트(Rockport, MA)의 락포트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번 연주와는 매우 다른 프로그램을 연주하게 되어 있고, 가을에는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쇼팽 & 찰리(Chopin & Charlie)"라는 제목의 시리즈 연주가 있다. 총 3회의 연주인데, 두 번은 완전히 쇼팽의 곡만 연주할 것이고 한 번은 저의 즉흥 연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다른 솔로 공연도 많이 있고, 미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음반은 4월 8일에 출시될 예정이다. 3장의 시리즈 음반 중 첫 번째인데, 제목은 "슈베르트 시리즈 / 라이브 / 파트 1"이다. 콘서트에도 많이 와 주시고 음반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주회 정보)  
 날짜: 2017년 3월 26일 오후 4시  
 장소: Pickman Concert Hall at Longy School of Music (24 Garden St. Cambridge, MA)  
 티켓: 일반 \$25, 학생 \$10 (www.kcsboston.org 혹은 781-223-4411)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bostonkorean@hotmail.com

##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등록마감 26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4월 8일 개최되는 2017년 뉴잉글랜드지역 과기협 수학경시대회의 온라인 마감일이 3월 26일 마감된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등록비가 \$25불로 저렴하며 이후 등록하거나 4월 8일 현장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록비가 \$30이다.

참가를 원하는 4-11학년 학생들은 과기협 홈페이지 http://www.ksea.org/nmsc/를 통해 온라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자들은 과기협 홈페이지에 예제 및 정답을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대회는 4월 8일 케임브리지 소재 MIT (54동 100호)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되며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을 위한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 행사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이하 과기협)에서 주최하는 전미(全美)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를 겸하는 행사로 매년 전국 참가 학생수가 2,000명을 넘는 대규모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매년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 및 후원 문의는 조진행 전 회장 (781-266-6990, contact@kseane.org)에게 하면 되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 http://www.ksean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MIT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성료

### 피터 초우 HTC 전 CEO 등 20여명의 업계 전문가 참가 작년보다 줄어든 중국 규모, 어수선한 미중관계 반영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4일과 5일 MIT에서 개최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아시아 시장의 다양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에 전반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커져가는 세계 경제에서의 아시아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예년보다 하루 더 늘어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테마는 아시아 경제와 그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아시아 출신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대만의 전자통신기기 전문 생산기업 HTC의 전 CEO 피터 초우 씨를 포함해 월 그레이린 삼성페이 공동 GM, 코야나키 타케히코 닛케이 아시아 리부 편집장 등 20명의 명사가 초대되었다. 이들은 기술, 금융, 소비력,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아시아 출신 전문가로서 업계의 최신의 동향과 미래 예측에 대해 심층적인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한국인 출신으로는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과 데이비드 조 소코클럽 공동 창업자가 참가했다.

올해 개최연설을 맡은 피터 초우 씨는 전자통신기기 기업의 CEO답게 가상현실(VR)이 바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초우 씨는 가상현실은 구글, 삼성, 애플, HTC와 같은 IT업계의 선두주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현실로 미래의 인류는 관광, 문화, 레저, 학습을 시간과 금전적 부담 없이 집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테마는 아시아 경제와 그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HTC의 전 CEO 피터 초우 씨를 비롯 20여명의 아시아 출신 명사들이 400명 앞에서 강연 및 토론을 가졌다

특히 “가상현실로는 인류의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여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인류가 상상해본 적도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호언했다.

과학 및 경영학 출신 학생들로 대거 채워진 400여 석 규모의 관객석에서는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질문을 얻기 위한 학생들의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세우는 것과 대형 그룹에 입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가’, ‘아시아 기업들이 진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작년 행사에 참가한 대다수의 패널들이 중국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역적 불균형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패널 구성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일본계(3명), 태국계(3명), 한국계(2명) 등의 전문가가 늘어났으며 중국계 출신 패널은 20명 중에 5명에

불과해 작년보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폰서 측면에서도 중국 스폰서의 참여도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중국측 스폰서는 4개로 작년보다 2개 줄어든 반면, 일본과 한국 그룹은 작년과 같은 3개와 1개를 각각 유지했다. 이날 행사에 유일하게 한국 후원사로 참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의 과자와 라면, 건강 보조 음료 등을 제공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관람한 중국출신의 저우 씨는 “작년 행사에서는 중국 일변도의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보다 줄어든 중국에 대한 언급과 중국 기업의 참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의 보호무역,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미중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itshunne@bostonkorea.com

## 보스톤 새생활센터 금연학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보스톤 최초 4일 금연학교를 실시한다.

매일 저녁마다 흡연과 구강, 흡연과 순환기 질환, 흡연과비뇨생식기 질환, 흡연과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강의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흥미로운 금연 동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다.

강사로 수고하게 될 구정모 목사는 삼육 서울 의료원과 삼육 부산 의료원에서 5일 금연학교장과, 국제절제 협회 한국지부장으로 수고하셨던 이분야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담배, 당신도 단연 할 수 있다.” 담배를 끊

어라”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교통편이 필요한 한인들은 사전 예약시 오크그로브(Oak Grove)역에서 라이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찍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다과가 제공된다. 예약은 송연호 대표(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평소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동기가 부족했거나 의지력이 약한 한인들, 금연을 미뤘던 흡연자들이 주 대상이다.

일시 : 3월 23~26일 저녁 7~9시  
장소 : 4 Spring st., Stoneham,  
주최 및 무료 진료 안내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 총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외공관 혹은 재외동포재단 등록 한글학교 교사로 20세 이상, 경력 3년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웹사이트

studykorean.net에서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이번 프로그램에 총 8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과정 이수자는 한국어교원 3급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 강원도 농수산물 봄맞이 특별 판매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7년 신년 봄맞이 강원도 청정 웰빙 식품 판매전이 로렌스 소재 판매점 (155 Parker St, Lawrence, MA)에서 개최된다.

3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열리는 강원도 농수산물 판매전에는 강원도산 도루묵을 비롯해 옥수수, 김치, 젓갈, 멸치, 다시

마, 100% 국내산 참기름 등 20여개 업체의 130여 품목의 제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미동북부 강원도민회가 후원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종수 대표(732-513-4369)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의회예산국 공식발표, 2천4백만명 보험 잃는다

▶▶1면에 이어서

다는 CBO의 분석은 충분히 경종을 울릴 만하다" 고 지적했다. 콜린스 의원은 "의회예산국의 지적은 현재 하원안 일부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 밝혔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개인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되는 내년 당장 1천4백만명이 보험 가입을 기피해 무보험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가 줄어들 경우 보험료는 점차 비싸질 것이며 메디케이드 축소로 수백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는 향후 4년안에 이뤄지며 2020년까지 약 2천 1백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폐지로 2026년까지는 약 7백만명의 직장 건강보험자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향후 2년내에 건강보험료는 15에서 20%까지 인상된다. 많은 젊은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을 포기함에 따라 기존 환자나 노약자들이 보험시장에 남게 됨에 따라 자연스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공화당안의 핵심 창안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는 커다란 악재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전체의 반대, 극보수층의 반축,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반박했다. 탐 프라이스 보건 장관은 이번 공화당 보험안이 보험료는 낮추며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는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이 가

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프라이스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보험안은 오바마케어처럼 거의 모든 건강분야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범위를 경량화하고 디덕터블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폴라이언 하원 의장이 American Health Care Ac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예산국의 분석과 공화당 건강보험안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며 약속했던 것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천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고 이후로도 계속 수백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보험료는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공허했는지 잘 보여 준다" 고 공격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어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해 2천 4백만명을 보험을 잃게 하는 것은 정말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결코 트럼프케어를 통

과시켜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메디케이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안은 연방정부의 주정부보조금액을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이므로 향후 10년 동안 8천8백억달러(\$880 Billion)을 삭감하게 된다.

폴 라이언은 "우리의 보험은 사람들에게 비싼 보험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좀더 쉽게 자신에게 맞고 저렴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변명했다.

린지 그레함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의회예산국이 분석한 것의 절반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커다란 우려사항이다. 따라서 의회예산국을 비난하기 보다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보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국은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2018년 및 2019년 15-20%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보험료는 어포터블케어액트(오바마케어)보다 10%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병원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미의학협회는 공화당안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AARP 또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AARP는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령 세금" 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수많은 보수그룹도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병회, 프리덤워क्स, 헤리티지 액션 등이 대표적인 지지유보 그룹이다.

editor@bostonkorea.com

## 직장건강보험 소유자도 안심 못한다

### 공화당 보험체계에서 700만 보험 잃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 보험안(American Health Care Act)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을 잃는 첫 번째는 저소득자이지만 고소득 직장인들도 건강보험을 잃을 확률이 많다고 보스톤글로벌이 지적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미국내 약 절반가량의 회사들은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직장보험은 1억5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약 7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직장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전체 무보험자 증가의 4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중 일부는 보험을 잃기 보다는 보험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이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몇 년 동안 보험가입을 않고 지내는 경우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 무보험자의 상당수는 회사들이 건강보험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생겨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예측했다. 공화당 보험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보험 의무제공을 폐지해 직장 보험제공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 64세 이하 직장인들이 보험을 잃는 경우 엄청난 보험료에 압박을 감내해야 한다.

직장건강보험을 계속 받는다 할지라도 향후 훨씬 비싼 보험료 또는 훨씬 커버리지가 낮은 보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의 보험료를 높이고 있어 이미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안은 높은 디덕터블에 필수 커버리지만 있는 보험과 건강보험세이빙어카운트를 결합한 보험안이란 인센티브를 회사들에게 제공해 이 같은 보험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직장건강보험안은 저소득층 보다는 사정이 낮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강보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재산보호, 불매권 방지, 재무조정  
신용회생, 분할 및 조정  
고령자도 상환, 학자금  
법원 사업체 등록, 징역, Divorce, TIR  
부동산(매각)리스 PM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외곽인재 드리는 기본 서비스**

주요 업무: 파산보호, 부채조정, 신용회생, 부동산, 상속, 기증, 유증, 영구권, 영주권, 이민, 변호사 소송

Call Us Today! 781.712.1706

**장우석 변호사** 변호사사무소 창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3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 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중년 남성들의 위기... 매사추세츠 자살 급증

자살방지센터, 가족생계 책임자로 부담 커  
보스톤글로벌, 무엇보다 외로움이 큰 원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금융 위기를 겪으며 매사추세츠 가정들의 어깨가 훨씬 무거워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내 자살자 수가 40% 급증했으며(3월 3일자 보도) 이중 절반 이상이 중년 남성으로 자살을 증가의 견인차였다.

매사추세츠 보건부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60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 328명과 살인 사망 147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다. 자살을 선택한 대다수 468(77%)는 남성이었으며 이중 35세에서 64세 사이의 중년 남성은 340명인 56%를 차지했다.

미국내 전체 통계에서도 35세에서 64세의 중년 남성의 자살율은 전체의 40%를 차지해 여전히 높았다. 35세-64세 중년남성은 현재 미국인구의 19%에 불과하다.

월덤 소재 교육개발센터의 자살방지자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자살 급증원인은 문화적인 기대감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중년 남성의 경우 독립적이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자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상실감이나 무력감 등을 타인에게 감추게 된다는 점도 한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의무감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이같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실직을 당하게 될 때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요소는 남성들이 행동심리치료를 기피한다는 측면과 맞물려 자살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및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남성들이 행동심리 치료를 받는 확률은 여성에 비해 훨씬 낮다. 남성들이 이 같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꺼려한다. 따라서 1차 진료의들이 남성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진단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문화적인 작용과 심리치료의 부재가 남성의 위험요소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자살방지센터에 따르면 자살에 있어서 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술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알코올중독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 또한 중년남성의 자살에 있어 총기의 역할도 크다. 미국전체 35-64세 중년남성의 2014년 자살 중 총기에 의한 자살은 52%에 달한다.

중년 남성중 실직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린 경우 자살율이 높았다. 또한 이혼 및 자녀 보호권 상실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도 자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방지 센터는 이 같은 중년남성 자살 방지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알리며 남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재정 및 법률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전화 : 800-273-8255, 877-870-4673

hsb@bostonkorea.com

# 박 대통령 탄핵, 외신들 반응 뜨거워

CNN, NYT, BBC, 아사히 등 외국 언론 서울발 속보 긴급 타진  
반 트럼프 정서 높아진 미국, 탄핵 배경과 진행 상황 상세 소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순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유래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 소식을 았다투어 긴급속보로 다뤘다.

CNN, 뉴욕타임즈, BBC, 알자지라, 아사히 등의 주요 외신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뉴스를 1면 톱뉴스로 다루며 '퇴출', '축출'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적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탄핵에 대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심층보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년간 집권한 군사 강경파 박정희의 딸이며, 최순실 씨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 최태민의 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최 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언급하며, 두 일가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미 대사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뉴욕 타임즈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한국의 시민운동의 승리로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시민들은 이전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바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시민운동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몇 달 동안 시민들이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미국 시민들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부러움을 표출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 재판소를 우리에게 보내 달라", "한국의 다음차레는 미국이다", "오늘 만큼 한국이 부러운 적이 없다"는 코멘트를 잇달아 달았다.

박 대통령 스캔들의 시작부터 매주 특집보도를 이어왔던 일본 언론도 파면소식을 속보로 다뤘다.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생길 한일관계의 변화를 우려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야당계 대통령 후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순간 CNN, 뉴욕타임즈, BBC, 알자지라, 아사히신문 등의 외국 언론들은 서울발 긴급속보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모습을 내비쳤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부패스캔들이 일어난 일본 사회 역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주목했다. 국유지를 극우단체에 할값에 팔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주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국유지를 매입한 학교 법인 모리토모 재단은 작년 원내 학생들에게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어야 한다'며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한국인을 혐오하는 자료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탄핵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아베인가"라며 자국 사회의 상황을 비꼬았다.

그 외에도 대만의 자유시보가 "한국사상 최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출되었다"며 긴급 소식을 타진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MA Best Nail School  
www.bcnailschool.com

78 Millis Ave #102, Millis, MA 01901  
bena76@gmail.com **781.729.8868**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범죄에 노출된 대학생들, 학내 범죄 증가

미 교육부 발표, 2015년 범죄 4만여 건, 성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늘어  
MA주 하버드, MIT, BU 등 학생 많고 대중에 공개된 학교들 범죄율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미 대학내 범죄율이 다시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교육부의 '전국 대학 캠퍼스 범죄보고'의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미 전국 대학 내 범죄는 전해의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폭력은 16% 증가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6,701개의 대학 11,286개 캠퍼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8,826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37,739건)과 2014년(36,288건)과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범죄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인원은 2015년 56,989명으로 2013년(67,700명)과 2014년(62,703명)

에 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도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10%가 줄어든 13,900건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살인 사건은 전년도와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에 있던 불티모어 소요사태와 10월 오리건 주에 위치한 음프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있었던 총기사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큰 폭으로 늘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4,700여 건으로 전년도의 약 12,200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성폭행 범죄는 총 9,265건이 발생해 2014년(약 8천여 건)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성폭행 범죄에서 강간은 5,911건이었고 강제추행은

3,354건이었다.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고가 부족했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결과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는 보고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캔자스 대학의 코리 웡 법학교수는 "성폭행과 강간에 대해서 대학은 그 수를 축소하여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실제 보고된 수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주는 캘리포니아로 총 4,445건의 학내 범죄가 발생했다. 그 뒤를 메



MA 대학 내 범죄는 하버드, MIT, 노스이스턴, 보스턴대학(BU), 보스턴칼리지(BC) 등 재학생 수가 많고 대중에 많이 공개된 대학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다

릴랜드(3,324건), 뉴욕(2,093건), 텍사스(1,979건), 펜실베이니아(1,701건)가 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1,564건으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학내 범죄는 성폭력 수가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가 주춤하거나 줄어든 전국적인 범죄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살인 사건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학내 범죄가 일어난 주요 대학은 하버드(140건)을 비롯하여 MIT, 노스이스턴, 보스턴 대학(BU), 보스턴칼리지(BC), 터프츠, 유매스 앰허스트 등이었다. 공통적으로 재학생 수가 많고 대중에 많이 공개된 곳일수록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캠퍼스 밖에서 일어난 범죄는 반영하지 않았다. 캠퍼스 안과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반영한 수치지만 학생이나 교수가 포함되지 않은 범죄도 기록에 포함되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주 대학 내 범죄 유형별 발생수

<b>&lt;강간&gt;</b> - 1위 하버드 36건 - 공동 2위 BC, MIT 23건 - 공동 4위 브랜다이즈, 터프츠, 유매스 앰허스트 17건  <b>&lt;강제 추행&gt;</b> - 1위 하버드 18건 - 2위 브릿지워터 스테이트 11건 - 3위 노스이스턴 10건 - 공동 4위 BU, MIT, 터프츠, 휘튼칼리지 8건  <b>&lt;강도&gt;</b> - 1위 노스이스턴 39건	- 2위 하버드 13건 - 3위 에머슨 10건 - 공동 4위 버클리음대, BU 9건  <b>&lt;가중폭행&gt;</b> - 1위 노스이스턴 31건 - 2위 하버드 16건 - 3위 BU 14건 - 4위 에머슨 11건 - 5위 파인 마너 칼리지 12건  <b>&lt;절도&gt;</b> - 1위 하버드 43건 - 2위 파인 마너 칼리지 36건 - 3위 MIT 25건	- 4위 아메리칸 국제 칼리지 21건 - 5위 BU 20건  <b>&lt;차량절도&gt;</b> - 1위 하버드 14건 - 2위 노스이스턴 7건 - 3위 BU 5건 - 공동 4위 MIT/MassArt 4건  <b>&lt;방화&gt;</b> - 1위 유매스 다투머스 6건 - 2위 유매스 앰허스트 5건 - 공동 3위 BC/MIT/노스이스턴 3건
--	---	---

##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 (1회 \$100)

3/22(수), 3/25(토)

설렁탕: 32oz 2통  
 해물 순두부찌개: 32oz 2통  
 오삼불고기 (오징어+목삼겹살): 24oz  
 멸치 아몬드 볶음: 16oz  
 취나물: 16oz  
 계란말이: 16oz  
 김치+깍두기: 16oz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제작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날 저녁 5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확장 중인 기업 77%, 다시 MA 선택할 것

우수한 인적 자원, 세금 혜택 등이 매력적  
보스턴 비싼 렌트비, 노후한 대중교통 문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0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확장을 했거나 매사추세츠 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의 대부분이 매사추세츠 주를 선택한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우수한 인력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사추세츠 주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매스 다투머스 도나후 연구소와 매스 이콘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확장을 했거나 이전한 기업의 77%가 재투자를 할 경우 매사추세츠 주를 다시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4%는 매사추세츠 주를 비즈니스하기에 좋은(good), 혹은 아주 좋은(very good) 곳이라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매사추세츠 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인력이다. 그리고 바이오테크와 같이 특정 산업의 경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산학 협조 등이 잘 되어 있는 점도 비즈니스하기에 매력적인 이유로 꼽혔다.

설문 조사를 진행한 매스 이콘의 수석 연구원 수잔 휴스턴은 “매사추세츠 주가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며 “설문 조사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매사추세츠 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선구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입장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문제점은 높은 의료보험 비용과 에너지 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보스턴을 포함한 동

부 매사추세츠 지역은 주택 비용이 비싸고 대중교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작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월 평균 렌트 비용은 2,038달러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였다.

세계적인 기업 GE는 코네티컷에서 보스턴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2,5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60%는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고, 이중 절반은 매사추세츠 주의 세금 혜택이 다른 주보다 훨씬 관대하다고 답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를 선택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사추세츠 상수도 정책 낙제점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가 상수도 정책과 관련하여 낙제점을 받았다.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라는 환경 단체에서 각 주의 상수도 정책을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수도 회사가 상수도 파이프의 납 성분 함유량을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수도 공급 회사는 파이프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혹은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지 알릴 필요가 없

다”고 지적하고, 이런 제한적인 제도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의 상수도 정책은 낙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신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정책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A를 받은 주는 커네티컷, 델라웨어, 뉴욕 등 3개 주가 유일하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미국 내 12개 주가 낙제에 해당하는 F를 받았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양, 특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점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Deacon St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xBar.com



## 마이클 리 모기지

Norcom Commercial Group, Inc. 1986.2 (F)1427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전문 분야

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 #145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0534405

####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8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rac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가 문제인 '세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납세내역 공개를 수차례 거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MSNBC방송의 문건 입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005년도 연방세 납부액을 스스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납세내역 발표에 미 언론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백악관 성명이 이처럼 주목 받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본다.

### ◇베일에 싸인 트럼프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총 1억5000만달러(약 1724억원)의 소득에 대해 3800만달러의 연방소득세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납부액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내역 공개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청렴성 검증에 위해 전통을 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국세청(IRS) 감사를 이유로 납세내역 공개를 미뤘다. 이러한 '변명'에 당황한 IRS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 중 내역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문건 공개 없이 취임하며 1976년 이후 납세내역을 밝히지 않은 첫 대통령, 주요 정당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활동이 완전 베일에 싸여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내놓기는 했기 때문. 그러나 이 목록에는 자산·소득이 두루뭉술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납세내역에 적힌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은 3가지

의혹 또는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자랑해온 사업가로서의 성공 여부,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 활동,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해를 두고 있는 자들의 정체다.

납세 내역은 개인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세 때 강조된 트럼프 기업의 성과가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금 규모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거부'(巨富) 트럼프 대통령이 자선단체 기부를 적게 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의 의혹도 살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해상충' 논란이다. 납세 내역은 개인이 거둔 소득 원천을 보여준다. 이로써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익을 파생하는 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에 연루됐거나 적대적인 해외 정부에 연관된 인사들이 수익 제공자라면 현 국정운영 중립성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흥역을 치른

클린턴재단 스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으로서의 트럼프는 어떻게  
문제는 "대통령에게 법률이 부과한 세금 이상을 낼 책임은 없다"는 백악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는 합법이나 불법이냐를 넘어선 더 많은 함의가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납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약 1억달러(약 1147억원)의 자산을 상각해 세금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년 간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난해 10월 NYT 보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 절세를 한 것이며, 그가 의혹대로 오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反) 트럼프 진영은 전혀 다른 시각을 취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과 달리 부자에 유리하다는 세법상 구멍을 찾아 매년 수백만달러의 이

익을 챙겨 왔다면 '가진 자로서의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1차 TV토론회에서 세금 미납부 의혹에 대해 "그래서 난 똑똑하다"(that makes me smart)고 대응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금을 냈어도 연방정부는 그 돈을 낭비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icef08@news1.kr

## 백악관 '오바마 도청' 사실상 번복

### 트럼프 도청 주장 사실상 철회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wiretap)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펼쳐온 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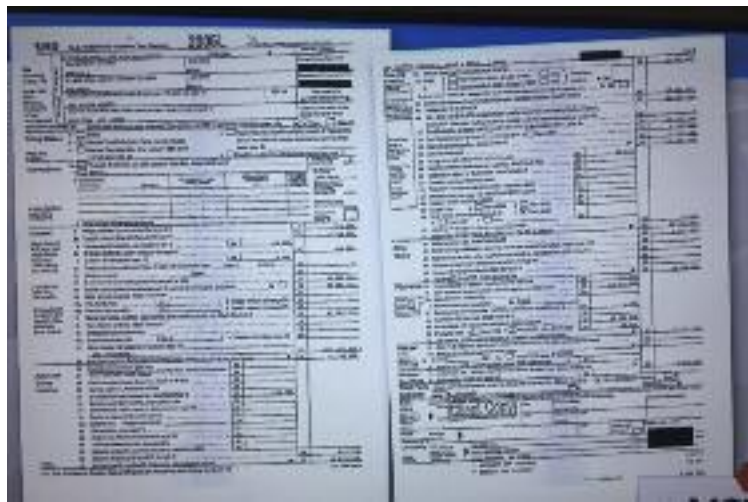
'도청이라고는 했지만 그 도청을 말한 건 아니었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이다.

CNN에 따르면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선거전에서 감시(surveillance) 등 다른 활동을 했다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략적으로 감시 활동 등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전체를 문제삼은 것이지만 오바마 개인이 그랬다는 주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도청을 주장하며 올린 트윗은 "오바마가 트럼프타워에서 내 (전화)선을 도청했다" "(오바마는) 나쁜 자식"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의 이날 발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근거를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최종시한에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 됐다.

lchung@news1.kr



미국 MSNBC방송이 입수해 14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도 납세내역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MR. SUSHI**  
15 YEARS  
**ARLINGTON MR.SUSHI**  
순두부, 일본 사골 라멘  
Spicy Soft tofu, Japanese Ramen  
열큰 순두부, 사골국물로 맛을 낸 구수한 MISO KAKUNI RAMEN

**TEL (781) 643-4175**

**\$5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3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25 MASS AVE. ARLINGTON, MA. 02116  
TEL 781-643-4175

**\$10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5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 615 4175

# FOMC, 완화적인 금리인상... "물가 2% 상한 아니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개월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점에서 속도가 빨라졌다.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 횟수를 3회로 동결하며 완화적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회복의지를 다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상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FOMC는 15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올린 0.75~1.00%로 결정했다. FOMC는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이 수개 분기 동안 높아진 상태로 2%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기업 고정투자가 "다소 강화됐다"며 경기 평가를 상향했다.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하다"며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전망을 낙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FOMC는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대칭적"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목표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가가 오버슈팅하더라도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FOMC는 "2% 인플레이션으로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 수도, 어떤 때는 2%를 웃돌 수도 있다"며

"2%가 상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FOMC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를 다소 밑돌고 있다"고 명시하며 완화적 뉘앙스를 더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원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반대표가 나왔다. 연준 자산축소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FOMC 성명서는 금리 정상화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대차대조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점도표에서도 FOMC의 완화 의지는 보였다. FOMC 위원들은 올해와 내년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3회로 동결하며 경제 전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2018년 인상 횟수 역시 종전의 3회로 동결했다. 2019년말 정책금리 예상치 중위값은 3.00%로 종전 2.75~3.00%에 비해 소폭 상향했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실업률 전망치 역시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거의 비슷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중간값) 역시 1.9%로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 전망 또한 종전과 같은 각각 2.0%씩으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도 2.1%로 고수했다. 2018년 성장률은 2.0%에서 2.1%로 소폭 올렸지만 2019년은 1.9%로 변함이 없었다. 실업률은 2017~2019년 모두 4.5%로 동일했다.

시장은 더 매교적 FOMC를 예상하며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했다. JP모간은 이번 FOMC에 앞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완화적 FOMC에 즉각적으로 급격한 되돌림이 일었다. 금리 가속화 전망으로 정체됐던 뉴욕 증시는 랠리를 재개했다. 다우는 세자릿대로 올라 0.54% 상승했고 S&P500은 장중 1% 넘게 오르기도 했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10bp 급락한 2.50%로 1주일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0.84% 떨어져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스티븐 리치우토 미즈호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FOMC 전망의 어조가 다소 비판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칼 샤폰타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 전략부 디렉터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기록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경제 안도랠리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각국 통화에 막대한 달러 롭포 지션이 쌓였다가 완전 후퇴모드로 가고 있다"며 "달러가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kirimi99@news1.kr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 금리인상,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끼칠듯

(서울=뉴스1) 오경목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있었던 데다 국내 시장금리에 선반영돼있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 만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예고해왔다"며 "국내 시장금리에 선반영돼있기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도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인상폭도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 당장 시장이 요동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미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금리가 3% 수준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변수다. 내수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상당한 소비를 일으키던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끊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밝지는 않다. 대출규제의 후폭풍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하반기 이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 '잠미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도 여전하다.

김 위원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선제조건인데 실물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경우 실수요는 관망세를 보이고 투자수요는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할만한 메리트가 없어진다.

실수요자들은 자급에 여유가 있다면 주택을 구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입을 보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교연 건국대 교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유동자금이 풍부해 과열기미까지 보여왔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정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notepad@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j.usgtr@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전통상차이 30년 100% 국내산 재료, 정통 장인, 100% 수제(기계는 100% 수제)로 만들어낸 정통의 맛

1. 전통 떡볶이  
2. 전통 떡갈비  
3. 전통 떡볶이

문의 617.248.3131 Happydol@gmail.com

Looking for Nail, Esthetician and Massage Technician

**COCO NAIL & SPA** TEL: 617.969.0406  
1175 Walnut St. Newton, MA 02461

**PLUSH NAIL & SPA** TEL: 617.244.6700  
80 Langley Rd. Newton, MA 02459

WE DO | NAIL, WAXING, FACIAL, MASSAGE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5월 9일 장미대선 확정...정치권, 대권 담금질 본격 시작

### 오는 28일 바른정당 시작으로 늦어도 다음달 8일 후보 확정 민주 우위유지, 보수대반전, 반패권주의 연대 변수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결정되면서 각 정당이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여당이 없는 5당 체제에서 치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지은 상태다. 이에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대권을 향한 총력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과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우위를 끝까지 어어갈지,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1위 후보를 잃은 보수층이 대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개헌을 고리로 한 반(反)패권주의 연대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향

후 대선레이스에서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시점은 바른정당이 오는 28일로 가장 빠르다. 이어 한국당이 31일, 민주당이 4월 3일 또는 8일(결선투표시), 국민의당이 4월 4일 각각 확정된다.

대선이 '본고사'라면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이라는 '예비고사'를 치러야 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경선은 완전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며 모바일 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경선에서 50% 득표율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당은 2단계 '컷오프'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오는 18일 1차 '컷오프'에서 6명을 확정된 뒤 20일 2차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본 경선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투표 5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50%로 진행된다.

국민의당은 1인 1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1~3위를 본선 후보로 선출한 뒤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안을 최종 경선물로 확정할 상태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나친 낙관론을 견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지금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14일 민주당을 제외한 이들 3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의 반대로 실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개헌을 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헌 연대를 바탕으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패권주의 대 반패권주의'의 프레임에 내세워 양자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제는 개헌을 고리로 한 반패권주의 연대에 누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연대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ykjmf@news1.kr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황지지 32.4%는 흥준표, 14.9%는 안희정, 11.6%는 안철수로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 15일 오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흥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합편성채널 MBN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 대행의 지지층 중 32.4%가 흥지사에 흡수됐다.

이에 3%대에 머물던 흥지사의 지지율은

7%선을 넘어섰다. 지지층 중 14.9%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11.6%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으로, 8%는 남경필 경기지사 지지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동한 지지층 역시 각각 5.3%, 3.7%, 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선 주자들의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행을 제외한 차기대선 다자구도에서는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7.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안지사(16.8%)가, 3위는 안의원(12.0%)이, 4위는 이시정(10.3%)이, 5위는 흥지사(7.1%)로 조사됐다.

그 뒤를 유의원(4.8%)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4.1%), 손의장(1.8%), 남지사(1.8%)가 따랐다.



흥준표 경남지사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jh.lee@news1.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드문 현명풍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대가 1호, 총 수납 약 18,000,  
 대지 면적 8000 sq.ft, 1970s 80764



Newton \$1,300,000  
 271구분, 연수\$104,900, 대지면적4200sq ft,  
 1970년대 양대 1호 2호, 파방돌이  
 팔로하기 좋은 위치 7 근접, 보스톤대학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후가정적 6067sq ft,  
 대지면적 18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후가정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접.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후가정적 679sq ft,  
 4000 sq ft 2010 신축, 1911 water(150)  
 365를 중심지 대역, T station, 공원, 박물관.



Wobchester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넓은 방4개 화장실 4.5개  
 후가정적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쁜 최고의 학교, 근접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artown, MA

# '21일 소환'... 차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극 응할 것" 입장 밝혀

(서울=뉴스1) 조재현, 유기림 기자 =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소환날짜를 통보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다.

손 변호사는 이에 앞서 오전 9시쯤 오전 범조 출입기자단에 연락해와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상녹화 및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탄핵심판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여론 조성에 불리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앞으로는 언론에 최대한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도 다시 꾸리고 있다.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냈고,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이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재

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임명됐으나 한 달여 만에 직에서 내려왔다. cho84@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 청와대 압수수색 큰 의미 없다... 남은 증거마저 폐기 우려

검 "압수수색, 초기 증거수집 목적... 지금은 수사정점" 우병우·세월호시간 관련 증거 확보는 이대로 끝?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현 수사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소환통보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응해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꾸준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규명 등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청와대의 반대로 압수수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1기 특수본의 경우 청와대가 내어준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직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월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까지는 수

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에 따른 물리적 인 시간·수사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 특검팀 수사까지 거치면서 확보된 관련자 진술도 있다.

여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응인 사유서에 서명한 한광욱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사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반려하면서 영장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자칫 소환조사가 무산될 것만을 우려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강

제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불응의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농단의 남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혐의뿐만 아니라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의 근무지이기도 하다.

더욱이 특검팀 역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생성된 청와대의 각종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각종 문서 폐기 및 반출 우려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자택으로 국정농단과 관련한 문건 등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cho84@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 청와대 증거인멸 의혹 정면 반박 "문서파쇄기 노획되서 교체된 것"

"노후파쇄기 교체... 이어 사용하다 연한되면 교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26대 구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16일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 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 단서 파기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를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혹이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 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서 파쇄기 교체 주기는 11년으로 이번에 교체된 대상은 노무현 정부 때 구입한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매 정부마다 상시 비치되는 문서 파쇄기는 고장난 것을 포함해 약 180대라고 한다.

정 대변인은 "비품이라 정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썼는데 너무 오래돼 소음도 나고 해서 도저히 사용 못하겠으니까 교체한 것"이라며 "교체할 때는 다음년도 구매 계획 예산을 편성해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입한 문서 파쇄기가) 김대중 정부 때는 19대, 노무현 정부 때 97대, 이명박 정부 때 27대, 박근혜 정부 때 39대"라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정부와 관계없이 이어지면서 사용하다가 연한이 되면 교체하고 한 횟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의 경우는 전년도 작성된 구매 예산에 따라 17대를 구매했고, 2017년의 경우에는 역시 전년도에 작성된 구매 예산에 따라서 12대를 구입했다"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모두 29대가 구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순실씨의 케이(K)스포츠택스단 인사 개입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2월까지 구매한 문서 파쇄기 수는 26대가 맞다고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2016년 2월 이후부터 2017년 2월까지가 29대이고, (지난해) 9월 이후가 26대"라며 "모든 게 전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구입된 것)"라고 설명했다.

girin@news1.kr

#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R. 17 - MAR. 23, 2017

## CREAMY DUKBOKI

Our easiest rice cake recipe ever! Chewy oval rice cakes drenched in creamy sauce.

고소한 크림소스와 쫄깃한 떡의 만남! 만드는 법만 알면 고추장 떡볶이보다 더 만들기 쉬운 크림소스 떡볶이의 레시피를 H마트가 알려드립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p><b>Korean Singo Pear</b> 한국산 신고배 3cm/pkg</p> <p><b>\$7.99</b></p>	<p><b>Ginger</b> 생강</p> <p><b>\$1.29</b></p>	<p><b>Washington Fuji Apple Premium</b> 왕성돈 후지사과 프리미엄</p> <p><b>\$1.29</b></p>	<p><b>Nagaimo</b> 일본 마</p> <p><b>\$5.99</b></p>	<p><b>Dragon Fruit</b> 드래곤 플러트</p> <p><b>\$3.99</b></p>
<p><b>Oriental Sweet Potato</b> 고구마 Medium Size</p> <p><b>\$1.29</b></p>	<p><b>SOONYEWON Tofu</b> 수녀원 콩두부 All Varieties/14 - 16oz</p> <p><b>\$0.99</b></p>	<p><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유기농 새송이 버섯</p> <p><b>\$3.99</b></p>	<p><b>Israeli Clementine</b> 이스라엘 클레멘타인</p> <p><b>\$1.79</b></p>	<p><b>Gobo</b> 우엉</p> <p><b>\$1.99</b></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Beef Top Blade Steak</b> 부채살 (왕갈비 스테이크)</p> <p><b>\$6.99</b></p>	<p><b>Whole Chicken</b> 통닭</p> <p><b>\$1.49</b></p>
<p><b>Pork Baby Back Rib</b> 돼지 등갈비</p> <p><b>\$4.99</b></p>	<p><b>Cow Feet</b> 냉동 우족</p> <p><b>\$2.49</b></p>
<p><b>Sliced Thinly Beef Brisket for Shabu Shabu</b>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2mm</p> <p><b>\$9.99</b></p>	<p><b>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LA)</b> 양념 LA 갈비</p> <p><b>\$10.99</b></p>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b>Kyung Gi Medium Gran Rice</b> 경기에 15 lbs</p> <p><b>\$9.99</b></p>	<p><b>SAMYANG Spicy Flavor Ramen</b> 삼양 라면 4.2oz x 20pkgs/bbox</p> <p><b>\$9.99</b></p>
<p><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68.0z</p> <p><b>\$14.99</b></p>	<p><b>KWANGJUN Green Tea Seaweed LAMBI</b> 광천 녹차김 0.7oz x 150pkgs/bbox</p> <p><b>\$9.99</b></p>

### 2017년 미국 동부지역 통영명품 수산물 특판전

TONGYEONG PREMIUM SEAFOOD SPECIAL SALES

**Special SALE**

Anchovy / Conger eel / Oyster  
Crab / Sea squirt / Natural seasoning / Laver

MAR. 17th - 26th, 2017 at Hmart Burlington Store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Head-on White Shrimp</b> 머리있는 새우 50 - 60%</p> <p><b>\$4.99</b></p>	<p><b>Salted Mackerel</b> 자반 고등어</p> <p><b>\$3.99</b></p>
<p><b>GLOBAL Unagi Kabayaki</b> 글로벌 우나기 10oz/pkg</p> <p><b>\$4.99</b></p>	<p><b>Small Fish</b> 냉동 빙어</p> <p><b>\$3.99</b></p>
<p><b>SUHYUP Sea Squirt Block</b> 수협냉동 멍게 1.1 lbs/1pkgs</p> <p><b>\$9.99</b></p>	<p><b>Norwegian Salmon Steak</b>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p> <p><b>\$6.99</b></p>

<p><b>HARU HARU Premium 100% Pure Sesame Oil</b> 하루하루 참기름 528.0z</p> <p><b>\$12.99</b></p>	<p><b>WAOPELM Pancake Frying Mix</b> 왕오름 부침/튀김 가루</p> <p><b>\$1.99</b></p>	<p><b>PENGUIN Canned Roasted Mackerel/Mackerel Pike</b> 펄린 고등어/용치 통조림 14.1oz</p> <p><b>2\$5</b></p>	<p><b>FOODCEL Vermicelli</b> 푸드셀 궁중 당면 1.5 lbs</p> <p><b>2\$5</b></p>	<p><b>CI Bingsoe/Pork Mandu</b> CI 빙고/돼지고기 소고/돼지 만두 2oz x 50pkgs - 2oz/Pack &amp; 50pkgs - 20pkgs</p> <p><b>\$8.99</b></p>
<p><b>SAONG WON Deep Fried Seaweed Roll</b> 사옹원 김말이 튀김</p> <p><b>\$4.99</b></p>	<p><b>WAOPELM Citron Tea with Honey</b> 왕오름 레몬차 2.2 lbs</p> <p><b>\$4.99</b></p>	<p><b>ORION Gosomi Cracker</b> 오리온 고소미 11.2oz</p> <p><b>\$3.99</b></p>	<p><b>HUI FONG FOODS Sriracha Hot Chili Sauce</b> 휘풍 스테이크 양념장</p> <p><b>\$1.99</b></p>	<p><b>NESTLE Green Tea KitKat</b> 네슬레 녹차 킷캣 4.7oz</p> <p><b>\$4.99</b></p>
<p><b>SCOTT Bathroom Tissue</b> 스캇 화장지 23roll/pkg</p> <p><b>\$13.99</b></p>	<p><b>WOONGJIN Green Plum Drink</b> 웅진 초록 매실 드링크 1.7L</p> <p><b>\$1.99</b></p>	<p><b>KOMAX Ceramic Cookware Flower</b> 코맥스 세라믹 내열냄비 12.2oz x 12.2oz</p> <p><b>\$18.99</b></p>	<p><b>체크 슬리퍼 Check Slipper</b> Uae/White/Black/Red - M</p> <p><b>\$1.99</b></p>	<p><b>ZOJIRUSHI M Corn Rice Cooker &amp; Warmer</b> 조지루시 미어용 밥솥 N-AAC10CA/White - 10.5qt</p> <p><b>\$139.99</b></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et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et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대선 시계'에 맞춘 사드?...이달 내 전개 완료 관측

한미, 사드 배치 속도전 vs 절차상 문제 · 주민 반발 관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지난 6일 이동식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관련 인력까지 한반도에 속속 도착, 이달 안으로 한반도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공여와 기반 시설 작업 완료 전에 사드와 관련 인력이 전개되면서 오는 5월9일대선일 이전에 성능 점검을 완료, 실전 배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 시계'에 맞춰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6일 "사드 관련 장비와 인력이 오산기지를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드 관련 장비는 대다수 이동식 완전체이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3월 안에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사드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X-밴드레이더(AN/TPY-2),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장비의 수송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력이 도착한다는 것은 경북 성주에 배치되기 전에 사드의 성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 테스트를 완료한 후 그대로 부지에 옮겨놓기만 하면 실전운용이 가능할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사드와 인력 전개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절차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성주 부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롯데측과 국방부의 토지 교환계약이 올해 2월 성사된 점을 놓고 보면 계약 완료 전부터 평가를 실시한 것이

다.

한미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부지 크기, 건물, 기반 공사 등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한미 양국의 기본설계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선정 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요소라는 지적이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방부는 기존 성주골프장 또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완공됐기 때문에 기존 건물들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또한 사드 배치에 필요한 소규모 신

축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보통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 전 사드를 배치하지는 양국의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절차 축소 논란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남은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구체적인 전개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playingio@news1.kr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군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사드저지 전국행동과 사드반대 단저권 추방평택시민행동이 연 사드 레이더 반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제주 크루즈 150만명 시대 꿈 물거품...사실상 휴식기

16일 크루즈 이용 관광객 전무...올 말까지 192회 기항 취소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제주 크루즈 관광시대가 사실상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오는 6월까지 중국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전날 오전 7시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가 중국인 1100여명을 싣고 16일 낮 12시 제주를 떠난 게 마지막이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703회 크루즈가 제주항에 기항하면서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들어 16일 현재까지 크루즈가 78회 기항해 관광객 17만1527명이 제주에 다녀가면서 목표치의 11% 수준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 관광이 금지되는 시점인 16일부터 제주를 기항하는 중국발 크루즈가 뚝 끊기면서 전년도 6500억원 규모에서 1조원까지 크루즈 시장을 키우겠다는 제주도의 꿈은 무너지게 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6개 선사에서 192회 기항을 취소했다.

16일부터 6월까지 코스타 선적의 코스타세레나호와 코스타이틀란디카호가 52회, 코스타 포추나호가 15회, 다음달 3일부터 8월까지 차이니스 아이산 크루즈가 28회, 12월까지 스카

이씨 골든에라호가 62회(강정항 7회 포함), MSC리리카호가 34회(강정항 3회 포함) 일정을 취소했다.

앞으로 6월까지의 중국발 크루즈 기항 일정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이후 예정된 일정 역시 중국의 지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월드와이드(세계) 노선과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노선이 21회 예정돼 있어 17일에는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1000t)가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20만9106명 중 중국인 비중이 무려 97.1%(117만4446명)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 크루즈 관광은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도는 크루즈 선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주기항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는 7월 개항하면서 178회 크루즈가 운항될 예정이었던 강정항 역시 기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제주기항을 취소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고태민 의원은 "크루즈 선사들이 일정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물리거나 향후 선석 배정을 후순위로 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크루즈 선사들은 이런 조치가 없으니 제주에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방적 취소 조치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asy0104@news1.kr



한국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15일 중국발 마지막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시 제주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관광을 위해 나서고 있다

## "사드 문제, 미중이 먼저 갈등 줄이도록 하라"...전문가

이태환 센터장,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서 주장 김현욱 교수 "북핵 해결위해 남북미 3자협의체 고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 한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16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해 전략적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마찰이 있지만 미중이 이 문제를 먼저 협의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의 조화를 위한 한미, 한중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또 "미중간 개별 사안들이 전략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에도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들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포럼에 참석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존재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북미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대화를 중재할 중재자의 역할을 중국이 아닌 한국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협상 이슈를 확대하고 북한이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요 이슈를 한미동맹이 새로운 어젠다로 끼워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고려해 한미중 회의에서 북한 급변 등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중시되어왔던 한미중 회의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greenaomi@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LISTINGS



Single Family

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 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
- 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 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 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 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 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 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 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줄리 전: 978.494.2043

# 차대통령 몰락 초래한 '불통의 리더십' 4년...실패의 반면교사

비선의존 · 인사난맥 · 사회갈등 초래  
독대 靑수석 · 장관 없고...소통과 포용 '실종'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취임 당시 '소통과 통합'을 표방했던 박 전 대통령이 '강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과 분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오랜 은둔 생활 속에서 폐쇄적인 비선조직에 의존했고, 이러한 정치스타일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정운영 스타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가를 사유화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40년의 인연을 이어온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인사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했으며, 이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식라인과 대면하지 않고 대신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과 국정을 논의,

최씨의 국정전횡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박 대통령은 긴밀한 소통을 나눠 할 내각과는 '대면보고' 없이 일방적 통치스타일을 고수했다. 조윤선·김규현 전 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청문회에서 "독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할 정도로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조차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국무회의는 받아 적기만 하는 '수첩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불통 철학'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들을 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면보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앞에 직언할 수 있는 참모진의 부재 속에 더욱 증폭됐다. 박 전 대통령 결연 왕실장(김기춘 전 비서실장), 왕

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언로를 차단했고, 이재만 전 총무·정호성·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를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만들었다. 측근들은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됐다. 김 전 실장과 안 수석, 정 비서관은 구속 기소됐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을 조사를 받았다. 한때 '좌(左)병우, 우(右)기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또한 소통 없이 측근들만 중용하다 보니 인사에서도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용준, 문창극, 안대희 등 총리후보자뿐 아니라 김종훈, 김학의, 김중훈, 김병관, 김명수, 정성근 등 장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 도중하차했다. 취임 첫해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순방 중 '성추문'으로 옷을 벗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보수인사들의 무덤'이란 얘기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 속에서 일방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은 '사회적·정

치적 갈등'만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월호 진상조사, 동남권 신공항, 사드(고 고 도 미 사 일 방 어 체 계·THAAD)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진보-보수간 대립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확산됐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갈등도 증폭됐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비공식 소통'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1월1일엔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 청와대 기자들을 불러 '비공식 회견'을 가졌고, 지난 같은 달 25일엔 인

터넷 매체인 '정규제 TV'와 기습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특검의 공식적인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고, 한때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은 진보 진영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보수층만을 겨냥했고, 이는 '보수-진보' 진영간 갈등을 확대, 국론분열을 낳았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은 서로 대치하며, 정국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 4당,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합의...21대 국회 적용 공감대

한국당 "하더라도 유불리 없는 21대 국회서 시행"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 '180석→과반 완화' 골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은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을 현 180석에서 과반(151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직권 상정 요건을 늘리는 안, 특정 증인·참고인 채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전조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되 다만 법 적용을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장이 아니라도 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개정을 정략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 시행 시기를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적용한다고 논의했다. 말 그대로 합의되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진화법 개정에도 다소 부정적인 입

장을 보여온 자유한국당도 21대 국회 적용 방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아 지금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숫자에 의거해 마구잡이로 할까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지금은 어느 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더라도 21대 국회, 즉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 유불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18대 국회 당시 '최루탄', '쇠사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지속되자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는다는 취재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무게를 둔 선진화법으로 인해 각종 법안 처리가 정체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의 4당 체제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선진화법 개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주도하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촉구했던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가능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반기 국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지만 각당이 유불리를 따지니 아예 21대 국회부터 하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도 "선진화법이 잘못돼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고쳐야 한다. 다만 적용 시기를, 필요

하다면 21대 국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4당 원내수석들은 15일 회동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한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을 현 180석에서 과반(151석)으로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3가지로 제한됐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조사를 안전조절위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tit25@news1.kr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불판

##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제1차 Newstar JBL Realty 정기 세미나



## 남문기 회장 초청 강연

#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벤치마킹 하라”

\$300로 시작된 남문기 신화, 아메리칸드림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듣는다



명예 회장 남문기 Chris Moonkey Nam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 로스앤젤레스 직선 한인회장 (제28대)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제23대) |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 (제21대) |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 (공) (역임)

사전 예약 및 분양문의: 이 제봉  
**781.654.5281**

일시: 3월25일 (토) 4:00~7:00PM

장소: Newstar 부동산 Boston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 통영 스텐포드 호텔 & 전미 세미나 투어

한려수도의 황홀한 비경이 한 눈에 뒤로는 미루산의 싱그러움 녹음이...

총무공 이순신장군의 호령했던 통제영 포구에 21세기 최첨단 호텔 콘도 리조트가 우뚝 섭니다.

## 통영 스텐포드 호텔 전미 세미나 투어

주최: Newstar JBL Realty

- 3/24(금) 달라스
- 3/25(토) 보스턴
- 3/27(월) 뉴저지 뉴욕
- 3/29(수) 시카고

120 유닛 총 600 계좌중 선착순 계약, 세미나 투어기간 중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분양 문의: 781.654.5281 (이제봉:Newstar JBL Realty 대표)



# 2017년 미국 동부지역 통영명품 수산물 특판전

TONGYEONG  
PREMIUM SEAFOOD  
SPECIAL SALES

Special  
SALE

Anchovy / Conger eel / Oyster  
Crab / Sea squirt / Natural seasoning / Laver



참가업체 굴수협 근해통발수협 명계수협 해담온 대원식품 빅마마씨푸드 태일식품

후원 통영시 H MART

기간 2017. 3. 17. ~ 3. 26

행사매장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 OFFICE LOCATIONS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aynard  
Norwood  
Plymouth  
Woburn  
Westborough  
Whitinsville  
Vermont Port

**Maine**  
Kennebunk  
Portland  
Saco  
Saxford

**Rhode Island**  
Newport

LEXINGTON BOSTON NEW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패트리어츠 FA 시장에서 분주한 움직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슈퍼볼 2연패를 겨냥 하듯 챔피언십에 걸맞는 로스터를 꾸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패트리어츠는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물급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선수들 중에서 꼭 잡아야 하는 선수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떠나 보낼 선수들은 속속들이 다른 팀을 찾아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패트리어츠 로스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일주일 동안 패트리어츠가 가장 잘한 일을 꼽아 봤다.

## 마텔러스 베넷 자리를 드웨인 앨런으로 교체

베넷은 지난 시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패트리어츠 선수 중 한 명이다. 유쾌한 성격으로 팬들과도 소통하고, 실력면에서도 랍 그롱코스키의 빈 자리를 충분히 채웠다. 그러나 베넷은 슈퍼볼 우승에 기여한 만큼, 시장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패트리어츠는 베넷을 떠나 보내는 대신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앨런을 영입했다. 패트리어츠는 앨런과 드래프트 6라운드 선택권을 얻는 대신 폴츠에 드래프트 4라운드 선택권을 줬다.

올해 27세인 앨런은 베넷보다 젊은 선수이면서 계약 잔여 기간 동안의 연

봉은 베넷이 요구하는 연봉의 절반 수준이다. 앨런은 앞으로 3년 동안 1,74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베넷은 팩커스와 계약을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최고 수준의 코너백 영입

패트리어츠는 아직 샬러리캡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최고 코너백을 영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빌스에서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코너백 스테픈 길모어가 자유계약 신분이 되자마자 패트리어츠와 계약을 맺었다. 26세인 길모어는 5년 동안 6,5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길모어가 합류하면서 패트리어츠는 세컨더리 수비에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넘버1 코너백인 말콤 버틀러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줄 수도 있다. 대신에 버틀러를 영입하는 팀은 패트리어츠에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줘야 한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버틀러와 길모어를 동시에 보유하면 NFL 최고의 패스 수비를 구축하게 된다.

## 듀론 하면, 앨런 브랜치와 재계약

하먼은 코너백과 세이프티 포지션을 번갈아 소화하며 패트리어츠에서



브랜디 쿡스의 합류로 패트리어츠는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4시즌 동안 63경기를 뛰었다. 패트리어츠는 하먼과는 재계약을 하고 (4년-2,000만 달러) 로건 라이언(타이탄스, 3년-3,000만 달러)은 떠나 보냈다.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태클 브랜치와도 2년-1,2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지만 크리스 룡, 자발 쉬어드, 바케비어스 밉고 등 다른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과는 작별을 고했다.

패트리어츠는 돈이 없는 팀이 아니

다. 기존의 선수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패트리어츠가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과 계약을 다시 맺지는 않는다.

## 브랜디 쿡스 트레이드로 영입

언론에서 패트리어츠가 길모어를 영입했다고 보도하고 있을 때, 패트리어츠는 세인트스와 또 다른 거물급 선수 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었다. 불과 23세의 나이로 벌써 1,000 리시빙 야드를

두 시즌이나 기록한 쿡스가 그 대상이었다.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주고 쿡스 트레이드에 성공했다. 쿡스는 랜디 모스 이후로 패트리어츠가 보유하게 된 가장 뛰어난 와이드리시버다. 다른 주전급 선수의 누수 없이 드래프트 선택권만으로 쿡스를 영입한 패트리어츠는 단숨에 NFL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팀이 되었다.

jsi@bostonkorea.com

# 추신수 멀티히트...박병호 6G 연속 안타

## 황재균 · 최지민 대수비 출전 무안타...김현수 2타수 무안타

(서울=뉴스1) 정명익, 이재상, 맹선호 기자 =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도 여섯 경기 연속 안타로 쾌조의 타격감을 선보였다.

추신수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삼진의 성적을 냈다.

올해 9번째 시범경기 만에 처음으로 2안타 경기를 펼친 추신수는 타율이 0.125에서 0.211(19타수 4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다소 침체됐던 추신수의 방향이는 1회부터 호쾌하게 돌아갔다.

0-1로 밀리던 1회말 무사 1루에서 상대 선발 트레버 바우어에게 2루 방면 내야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1-7로 크게 뒤지던 3회말 1사 1루에서 이번에는 좌전 안타를 터트렸다. 바우어의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82.6마일(약 133km) 짜리 커브를 부드러운 밀어치기 스윙으로 연결했고, 1루 주자 카를로스 고메스를 3루까지

보냈다.

추신수는 바우어의 폭투 때 2루까지 갔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는 5-8로 추격하던 4회말 2사 1루에선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6회 수비에서 제러드 호잉과 교체됐다.

박병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센추리링크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시범경기에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4일 필라델피아아전부터 이어져온 연속 경기 안타수를 '6'경기까지 늘린 박병호의 타율은 0.400(25타수 10안타)이 됐다.

박병호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냈다. 그는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마이크 리크의 공을 받아쳐 중견수 방면 안타를 터트린 후 후속 타자인 조 마우어의 좌익수 방향 2루타 때 득점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안타를 생산하진 못했다. 박병호는 이어진 타석에서 외야 뜬공과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결국 7회말 대타 맷 헤이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로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8-0으로 이겼다. 미네소타는 시범경기 10승(6패)째를 거뒀고, 세인트루이스는 11승(6패)이 됐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몸에 맞는 공으로 7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던 레콤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범경기에서 김현수는 3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

타 1사구 1삼진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1회초 1사 3루에서 피츠버그 선발 제이미슨 타이론의 투구가 김현수의 발등을 때렸고 김현수는 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엔 침묵했다. 그는 두 번의 타석에서 모두 범타를 기록한 뒤 6회말 대수비 아네우리 타바레스와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선취점을 내기도 5-6으로 패했다.

maeng@news1.kr

#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Greater Parish of Catholic Church

사순피정  
3/10(금) 7PM-10PM  
3/11(토) 10AM-4PM  
지도신부: 이재규(베드로)  
주제: 고통에 대한 인간의 생각  
-음기를 중심으로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미사복 (행전 3:18)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봉부설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일 7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BOSTON MILAL KOREA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평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주회: 15 Alpha Rd.,  
Cleveland, MA 01624  
전화: 978.57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ket에서 15분 거리

유세부: 김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주노년부: David Moon 김도사  
영년부/130 David Moon 김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R.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경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별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3404  
www.sarangjelgwo.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6.796.4488  
http://wumkcc.org

담임목사: 김현터  
8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해 받았던 말씀이 영구히 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릎 꿇고 사탄 사탄에게, 그로써의 영혼 교회를 영구히 받들 것입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사랑에 영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영년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 본사를 본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영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2000년도 프로그램, 가치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미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총책임자 **이선호**  
781.266.7245

# 형제 떡집



이주하느라 개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3월 20일부터 주문 받습니다.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원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카운터 보실 분**

플래밍햄에 있는 드라이클리닝 픽업스토어(오피스 빌딩안에 위치)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함. 3/24-3/31(오전 8:30-오후 2시 까지), 좋은 보수 T. 774-278-1444

정식 지압가게에서 지압사 구함  
사우스케롤라이나  
T. 678-267-4624

SAT/SSAT/ACT/TOFEL 21년 전문지도  
현직 고교 SAT/AP 영어교사  
확실한 효과 보장 T. 781-392-8505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지압가게 매매**

지압가게 매매합니다.  
사우스케롤라이나  
T. 404-397-480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19th President Election

## 조국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보내주세요

Send the love for your country to Korea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Apply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2017. 03. 30까지

### 신고·신청 방법

How to apply or register

※ 여권사본 등 미제출  
Copy of passport  
no longer needed

- ▶ 인터넷 이용 (ok.nec.go.kr 또는 ova.nec.go.kr)  
Online (oknec.go.kr or ova.nec.go.kr)
- ▶ 공관방문 / 순회접수  
Walk-in registration at a diplomatic office /  
Submission at a circulating diplomatic office
-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 Via email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Easy and Fas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via the Internet!

재외선거 ▼ 검색 또는 **ok.nec.go.kr**

# 담배는 마약이다!

보스톤 새생활 센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 담배 전래 역사**  
우리나라(한국)에 담배가 전해진 것은 4백년 정도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 시기를 1616년이나 1618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최초의 실학자인 이수광이 1614년 작성한(지봉유설)에는 "담과 고(담배)는 풀이름인데 남령초(南靈草)라고도 불린다. 근래에 일본으로부터 왔으며...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씁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책을 쓴 1614년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씁니다고 하니 그 이전에 담배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큼니다.

담배는 초기에는 약초로 인식되어 남쪽에서 전래되어 온 신비스러운 풀이라는 뜻으로 '남령초(南靈草)'라고 불리었다가, 담배의 영어 표기 토바코(Tobacco)가 일본에서 파바코가 되었고, 그것이 조선에 전래될 때 발음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담과고(淡婆姑), 담박괴(淡泊塊)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담배는 일본으로 부터 전래가 되었는데 그 때가 임진왜란의 시기였습니다. 다른 전쟁도 그렇지만 특히 임진왜란 전후의 시대적인 변천이 그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시대상의 내용을 언급해 과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표현하는데 그 구분이 역시 담배의 영향이 지대하였기도 합니다.

당시의 담배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였기도 하였죠. 담뱃대 길이에 따라 신분이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 담배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나 권위, 양반의 신분을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내용은 결국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이 있기 전의 시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국 흡연량 일평균 25개비...흡연자, 인구의 23.9%

한국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자 비율이 세계 평균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월 8일자 미국의학협회지널(JAM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호주 멜버른대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32년간(1980~2012년)에 걸친 15세 이상 흡연인구와 흡연량 등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흡연량은 17.7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5개비로 세계평균치보다 41% 가량 많았다. 한국의 흡연자 비율은 2012년 전체 인구의 23.9%를 차지해 전 세계 평균 18.7%를 넘어섰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전 세계 평균인 31.1%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흡연자 수는 996만명으로 1980년 845만명보다 150만여명 증가했다.

연구팀은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과 같이 흡연인구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흡연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전체 187국의 흡연율은 1980년 25.9%에서 2012년 18.7%로 줄었다. 다만 인구 증가로 인해 흡연자 수는 7억267만명에서 9억6731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담배 소비량은 4조9581억개비에서 6조2460억개비로 늘었다. 다만 흡연자 한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는 18.8개비에서 17.7개비로 줄었다.

연구팀은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연간 570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국이 흡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흡연과 암 이환률**  
행복 조건을 묻는 설문지로 질문하는 중에 '일생 중에 참된 행복의 최대 최고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은 '건강 장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건강이야말로 최대 최고의 축복이요 건강 장수야말로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부귀영화와 고관대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래 <도표 1>은 한국인의 흡연과 암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도표 1> 한국인의 흡연과 암 발생 위험도

비흡연자들(-)로 보았을 때 간암은 1.2배이고 식도암 3.6배이고 폐암은 4.6이며 흡연시 담배 연기를 직접 쏘이는 구강 후두암은 최고치인 6.5배입니다.

담배와 술 그리고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계산해보니 아래 <도표 2>와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뒤야 할 부분이 곧 흡연입니다.

담배가 전체 사망률의 63.7%를 차지한다는

것은 담배의 위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사망자수(명)	사망률%
담 배	450,000	63.7%
알코올	110,000	15.4%
사 고	50,000	7.2%
코카인	3,400	0.5%
헤로인	2,500	0.4%

<도표 2> 5일 금연학교 제공  
이것을 계속 흡연으로 인한 몇몇 국가별 사망자 수(<도표 3>)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구수로 보면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1년에 담배 때문에 3만여 명이 사망한다니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흡연률이 높고 인구도 많은 중국같은 나라는 100만여 명이 넘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 \* 중국 - 약 100만명
- \* 인도 - 약 70만명
- \* 미국 - 약 40만명
- \* 소련 - 약 40만명
- \* 영국 - 약 5만명
- \* 한국 - 약 3만명
- \* 호주 - 약 2만명

<도표 3>

그러기에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담배와의 전쟁에서 '담배는 마약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끝마쳐요 우리! 흡연을 시작해요 우리! 금연을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어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와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reg. \$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이, 학교/유학생/이민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 '아빠는 딸', 코미디 영화 계보 잇나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영화 '아빠는 딸'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제문, 정소민 주연의 '아빠는 딸'은 '수상한 그녀', '럭키' 에 이은 또 하나의 코미디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하루 아침에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아빠는 딸'은 '수상한 그녀'와는 배우들의 2인 1역 연기라는 공통점을, '럭키'와는 다른 인물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설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작사 측은 "아빠와 딸이 서로의 삶을 대

신 살아보며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아빠는 딸'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코미디로 온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렇듯 최강 출연진의 열연과 과격 연기 변신에 힘입어 웃음 폭탄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세대간의 화합과 이해의 과정을 그리며 감동까지 선사할 '아빠는 딸'은 올 봄, 또 하나의 레전드 코미디 영화로 등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아빠는 딸'에는 윤제문, 정소민을 비롯해 신구, 이일화, 이미도, 강기영, 박혁권, 허가윤, 도희 등이 출연한다. 내달 13일 개봉.

kun1112@news1.kr



## '추리의 여왕' 권상우X최강희 강렬 포스터로 치명 추리극 예고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추리의 여왕'의 2차 티저포스터가 공개됐다.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극본 이성민/ 연출 김진우 유영은) 측은 15일 강렬한 레드 톤의 2차 티저포스터를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2차 티저포스터는 매혹적이고 정열적인 붉은 색감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다. 이와 함께 마약반의 에이스 형사 완승(권상우 분)과 그와 함께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해나갈 추리퀸 설옥(최강희 분)의 감각적인 캐릭터 대비가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특히 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발산하고 있는 권상우의 뜨거운 카리스마와 미스터리한 여인으로 변신한 최강희의 비밀스러운 손동작 등 두 캐릭터의 특징을 절묘하게 포착해낸 티저 이미지는 '본능'적인 직감과 '이성'적인 추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두 인물 간의 긴박한 공조수사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추리의 여왕'은 '김과장' 후속으로 내달 5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nahee126@news1.kr

# 보스톤 새생활 센터 금연 교육

## 담배를 끊으시고 싶으십니까? 도와 드리겠습니다!

MARCH  
23-26



### 강사 구정모

#### 약력:

삼육 서울 의료원 5일 금연학교장  
삼육 부산 의료원 5일 금연학교장  
국제 절제협회 한국지부장

#### 저서: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담배, 당신도 단연 할 수 있다”  
“담배를 끊어라”  
“NEWSTART 금연법”

### 금연교육 매일 제목:

- 3월 23일(목): 흡연과 구강
- 24일(금): 흡연과 순환기 질환
- 25일(토): 흡연과 비뇨 생식기 질환
- 26일(일): 흡연과 호흡기 질환

문의 전화: 317.374.4786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일시: 3월 23일 - 26일, 저녁 7시 - 9시

• Oak Grove Station(Orange Line)에서 교통편 제공

• 저녁 6:30-7:00에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12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8%
2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24.3%
3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2.9%
4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1.4%
5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7.0%
6	KBS1	KBS9시뉴스	16.2%
7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6.1%
8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5.4%
9	SBS	순간포착	12.4%
10	SBS	그것이알고싶다	11.9%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7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8	MBC	일일특별기획(황금 주머니)
9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0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KNOCK KNOCK	트와이스
02	Fine	태연
03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04	Rookie	레드벨벳
05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6	YESTERDAY	블락비
07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08	봄날	방탄소년단
09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10	노래	Zi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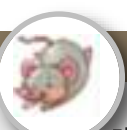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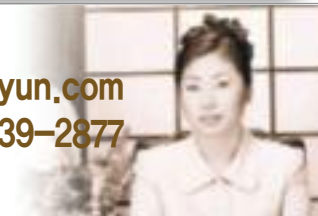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4		3		8		9	
				9			7	
2		6	8					
3	8	9				7	6	
			6	3	1			
	2	1				3	4	5
					8	1		6
	6			2				
9		7			5		8	

3월 19일 - 3월 2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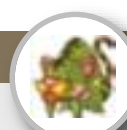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따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 운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 소띠 | 누울 자리를 보고

● 운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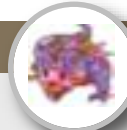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 범띠 |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 운수: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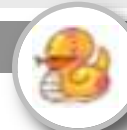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 토끼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해야 하겠습니.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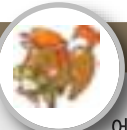
### 용띠 | 마음이 풀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 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나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 ●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 ● 애정: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 자신의 마음이 풀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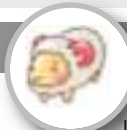
### 뱀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 운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요. ● 금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 말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 운수: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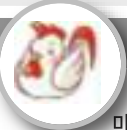
### 양띠 | 한 숨 돌리게

● 운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 ● 애정: 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5일 길일. 20, 24일 주의.



### 원숭이띠 | 경청하고 배려하는

● 운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 ● 금전: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 애정: 상대가 내 맘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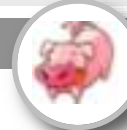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 닭띠 |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 운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 ● 애정: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4일 주의.



### 개띠 | 좋은 시간을 선물

● 운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이 받습니. ● 금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 야망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 ● 애정: 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이 따릅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길일. 19, 21일 주의.



### 돼지띠 | 이미지 변신에

● 운수: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 ● 금전: 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보세요. 자연의 내용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5일 주의.



## 윤여정x이서진 '윤식당'..나영석 매직 통할까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윤여정과 이서진, 정유미의 이색적인 조합은 나영석의 매직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나영석PD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윤식당'은 공식화되기 전부터 윤여정과 이서진, 정유미의 조합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더욱이 '신서유기' 시리즈와 '신혼일기', '삼시세끼' 등 국내에 없던 예능 장르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던 나영석PD의 새로운 도전이기에 어느때보다 관심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다.

'윤식당'은 세 사람이 발리의 한적한 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 우선 발리의 이색적인 풍광은 각박한 일상을 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달콤한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윤여정의 카리스마와 이서진의 '투덜거림', 이 와중에 발생하는 이서진과 정유미 간의 달달한 '케미'까지 예상돼 볼거리는 이미 풍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중의 니즈를 파악한 볼거리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색 조합은 나영석PD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매번 새로운 예능 포맷이 항상 성공을 거뒀던만큼 이번 '윤식당'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제작진은 "이번 신규 예능에서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색다른 일상을 담은 계획이다. 누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보는 꿈을 꾸곤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촬영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인근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여유로움으로 다이버들과 여행객들 사이에서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곳에서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가 작은 한식당을 내고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된다"고 전했다.

'윤식당'은 3일 금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하는 '신혼일기'가 끝난 직후 첫 티저를 공개한다. '신혼일기' 후속으로 오는 3월 24일 금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할 예정이다.

hnh1@news1.kr



## '해투3' 김희철, 게이설에 종지부?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게이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희철은 최근 진행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의 '사우나 리턴즈' 편 녹화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셀프 사생활 폭로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이수근은 "김희철과 친해지면 굉장히 좋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고, 김희철이 걸그룹들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덩달아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걸그룹의 생일 영상 통화를 구경할 수 있다. 김희철을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고 증언해 현장 모든 남성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이에 김희철은 "이래서 내가 남자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금단의 문을 열어젖혀 폭소를 유발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험기왕성한(?) 사생활을 폭로하며 게이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희철은 "나는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는 절대 편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돌연 함께 출연한 나라를 향해 "우리 아직은 존댓말을 쓰자", "나라의 아버님은 내 정인"이라고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naheel26@news1.kr

## '무도' 측 "재정비 끝, '대결! 하나마나'로 컴백 방송 시작"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무한도전'이 7주간의 재정비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상 방송으로 돌아온다.

오는 18일 오후 6시2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대결! 하나마나'가 방송된다.

'대결! 하나마나'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평소 즐기던 게임이나 취미 생활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시작됐으나 승부욕에 불탄 멤버들이 점점 더 큰 대결 종목들을 제시하면서 끝없는 대결이 펼쳐지는 내용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쉬는 시간에는 모여서 어떻게 노는지, 누가 어떤 잡기에 능한지 등 평소 방송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빠짐없이 드러날 예정이다.

naheel26@news1.kr



**천지보설**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완벽한 아내' 신현준 등장으로 또 반전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완벽한 아내'가 또 한 번의 반전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밤 10시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극본 윤경아/ 연출 홍석구) 6회에서는 첫사랑 차경우(신현준 분)와 재회하게 되는 심재복(고소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심재복은 이은희(조여정 분)의 의미심장한 행보에 불쾌감을 느낀 뒤 "그동안 나랑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 놓고 한편으론 날 의심하고 있었던 저가 뭐가. 남편 옛날 여친 주굴스런 모습 보면서 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님 도대체 뭐가"라고 분개, 이은희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심재복의 추궁에 순순히 이혼과 별거를 인정한 이은희는 "차경우와 왜 같이 사는 척, 사이좋은 척했느냐"는 심재복의 질문에 쉽사리 답을 못해 의심을 자아냈다. 이에 차경우를 여전히 남편이라고 칭하고 그 역시 은희의 집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진짜 잘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또한 방송 말미 이은희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차경우가 단번에 심재복을 알아보는 모습이 그려져 '완벽한 아내'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nahee126@news1.kr



### 티보플레이 3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다시 첫사랑         |
| 2  | KBS |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
| 3  | KBS | 빛나라 은수         |
| 4  | SBS | 사랑은 방울방울       |
| 5  | MBC | 행복을 주는 사람      |
| 6  | SBS | 우리 갑순이         |
| 7  | SBS | 피고인            |
| 8  | MBC | 황금 주머니         |
| 9  | MBC |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
| 10 | KBS | 김과장            |

### 티보플레이 3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완벽한 아내         |
| 2 | KBS |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
| 3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4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5 | CJ  | 너의 목소리가 보여 4   |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 1 | 루시드 드림 | 고수 |
|---|--------|----|

##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 분식집은 가족애의 상징"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변 씨네 가족들에게 '아빠 분식'은 어떤 의미일까? 극중 김영철은 아내, 자식들과 함께 건물 1층에서 분식집 '아빠 분식'을 운영, 3·4층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아빠 분식'의 의미는 남다르다. 삶의 터전임은 물론 아버지 김영철과 어머니 김해숙이 온갖 시련을 겪은 이후에 다시 일으켜 세운 터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한마디로 피와 땀, 눈물이 서려있는 곳이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관계자는 "아빠 분식은 변 씨 가족 간의 화합과 가족애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한층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이는 특히 김영철과 김해숙, 두 베테랑 연기자들의 열연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뒷받침되는 중이다. 드라마의 중심을 담당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에 두 부부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nahee126@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향집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 보스턴과 서버브 지역에서 ESL과 스킬 빌딩 프로그램

888.848.8260  
INTERNATIONAL@CSINOW.COM



CSI 는 모든 타임의 인터내셔널 학생 등록을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언어 학교에서 트랜스퍼 가능
-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자금 CSI로트랜스피(Transfer) 과시고, \$100트랜스피로 할인 받으세요!

**PROMO CODE**  
**NPBK3**

Use Promo Code to Apply Online CSINOW.EDU  
CSINOW.EDU에서신청하실때 프로모션 코드 NPBK3를사용하십시오.

**\$100 OFF\***  
Transfer Fee

\*Promotional offer valid only for students who enroll and pay classes for spring 2017 quarter.

<p>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33 주/ 강의 + 랩 초급 ESL 중급 ESL 고급 ESL</p> <p><b>\$3,900</b>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할때 이점이 제공되며 학비 포함이다</small></p>	<p>아카데미 Academic ESL 33 주/ 강의 + 랩 글쓰기 문학 대학</p> <p><b>\$4,200</b>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할때 이점이 제공되며 학비 포함이다</small></p>	<p>스킬 빌딩 Skill Building 14 주/ 강의 + 학외연수 고객 서비스 전문 서비스직 전문 비서직 스몰 비즈니스 관리 세일 &amp; 마케팅 전문</p> <p><b>\$5,100</b>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할때 이점이 제공되며 학비 포함이다</small></p>
--	--	---



Computer Systems Institute (CSI)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Massachusett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ivision of Professional Vocations, Office of Adult, Continuing, General Education. CSI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to award certificates. ACCI is recogniz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For more on accreditation and why it matters for you, check out the Accreditation page at <http://www.csinow.edu/csi-advantages/accredit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s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Students enrolled in ESL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extended practical training (EP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ork authorization. Programs vary by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gram graduation rate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csinow.edu/about-csinow-customer-information](http://www.csinow.edu/about-csinow-customer-information) - 1 Month (2015/10/17 ~ 4/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헤밍웨이와 쿠바

미지의 세계처럼 설렘으로 있었던 곳, 한 번쯤은 다녀오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분방하던 대문호 헤밍웨이가 20여 년을 생활하면서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며 만났던 그 바다를 보고 싶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 중부 문학 기행>을 하며 시카고 교외의 오크파크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헤밍웨이의 생가를 방문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헤밍웨이가 만났던 그 바다를 보러 쿠바로 향했다. 1961년 국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이루어진 쿠바와 미국과의 국교가 재개(2015년 7월 20일)된 지 2년이 되었다.

"헤밍웨이의 작품 중 1940년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미국 청년 로버트 조단을 주인공으로 한 그의 최대의 장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발표, 《무기여 잘 있거라》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강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1950)는 예전의 소설의 재판(再版)이라 해서 좋지 못한 평을 얻었지만, 다음 작품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대어(大魚)를 낚으려고 분투하는 늙은 어부의 불굴의 정신과 고상한 모습을 간결하고 힘찬 문체로 묘사한 단편인데, 이 작품으로 1953년 풀리처상을 받고,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의사였던 아버지와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사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헤밍웨이는 전형적인 부유층 백인 가정에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했던 어머니로부터 문학과 음악을 배웠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던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해서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유분방했던 성격의 헤밍웨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학은 포기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아버지와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쩌면 쿠바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급하지 않은 여유로운 성격과 너무도 잘 어울렸을 법한 모습이 오버랩되어 스쳐 지난다. 그는 너무도 자유분방한 성격에 첫 번째 부인 해들리와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연

인 관계였던 파리 (보그)지 편집부장이었던 폴린 파이퍼와 재혼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폴린과 함께 파리를 떠나 미국의 휴양도시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는 존경하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우울증을 겪다 권총 자살을 한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헤밍웨이는 두 번째 부인 폴린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었으며 그는 10여 년 만에 폴린과 별거했다. 그리고 그는 쿠바의 아바나 지역에 농장을 사서 이주했으며 스페인 내전을 취재할 당시 만났던 기자 출신의 마사 겔혼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같은 해에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출간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미 해군에 지원했다. 그는 또다시 마사와 이혼을 하고 이듬해 기자 메리 웰시와 네 번째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쿠바의 농장과 아이다호 주 케첩에 저택을 구입하여 두 곳을 오가며 살았다. 1950년에는 《강

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를 발표하였는데, 비평가들은 물론, 독자에게도 혹평을 받았다. 헤밍웨이는 이 때문에 우울증을 겪으며 술과 낚시에 빠져들었다. 1952년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가 출간되면서 다시 평판과 독자들로부터 폭발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 작품이 게재된 <라이프>지 1952년 9월호는 이를 만에 530만 부가 팔릴 정도였다고 한다.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는 1953년 풀리처상을,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헤밍웨이와 쿠바, 쿠바와 헤밍웨이는 둘을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집필하며 생의 마지막 20년을 보낸 생가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유분방했던 그의 삶과 너무도 닮았을지도 모를 오래 전 쿠바의 활발했던 무역과 마약과 매춘으로 얼룩져 어두웠던 그리고 이념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쿠바를 생각하며,



## 한담객설閑談客說: 미역국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산후 조리가 난감했다. 철없는 애 아빠는 그런걸 알 리 없었다. 말로만 들었고, 연속극에서나 보던 이야기였던 거다. 산후조리에 친정어머니가 온다는 건 꿈같은 시절이었다. 유학생촌촌 동네아낙들에 의하면,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구들장을 지고 오랫동안 지져야 산독產毒이 빠진다고도 했다. 미국 간호사가 이걸 알 일이 없다.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친절하게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시기를 강요했다. 게다가 찬물에 샤워 하란다. 더운 덩어리를 몸 밖으로 빼낸 산모의 낫진 체온인데, 이한치한 以寒治寒이었 던가.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여 퓨전 산후조리법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동네 아낙들이 산모에게 미역국을 한 냄비씩 끓여 왔다. 아내는 입맛이 없었고, 철없는 아빠는 미역국 밖에 먹을 게 없었다. 미역국도 맛이 여러 가지 인줄을 몰랐다. 멀치 넣어 끓인 미역국도 있었고, 조개를 넣어 끓여낸 마알간 미역국도 맛보았다. 쇠고기 국물로 우려낸 기름진 미역국도 밥 말아 양배추 김치

랑 먹었다. 그 많은 미역국을 여러 날 동안 혼자서 먹어 치웠다. 그리고 우유먹는 아이 옆에서 놀이지게 잠들었다.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미역국만으로 연명한 시절이었던 거다. 그러니 산모대신 아빠만 살이 통통히 올랐다. 그 해 겨울은 아빠만 배불렀고, 눈썰만 쌓여 갔다. 흰눈이었고, 서늘瑞雪이었다.

참, 내 어머니도 나를 낳고는 병원에서 주는 미역국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 그랬던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을 적이다. 어머니는 소고기를 몇 점 넣었고, 미역국을 펄펄 끓였다.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에 말아 어미개에게 먹였다. 어머니의 말씀. '사람 믿고 사는 짐승인데,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 많이 먹어라.'

새 생명을 낳는 우리 젊은 아낙들이여, 축복받을 지니, 미역국 많이 드시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4)

봄이면 어린것들이 태어난다. 어린 생명들은 태어나는 건 신비롭다.

새 봄이 그렇게도 곱고 포근한 까닭은 이슬, 꽃, 나비…… 그토록 조그마한 생명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숙자, 악한 생명들이 중에서)

생명의 탄생은 미역국을 떠올린다. 아이를 낳은 다음 산모產母가 먹는 국인줄 아는거다. 아니면 미역국은 생일날에 먹는 것인줄만 알았다. 요사이 저녁 밥상에 자주 미역국이 올라온다. 빠르게 내 머리가 회전한다. 혹시 누구 생일인데, 잊은 건 아닌가? 내 생일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물어 볼 수 없다. 만약 차가운 눈초리가 돌아 온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군말없이 주는대로 먹어 치운다. = 아주 오래전이다. 첫아이를 낳을 적이다. 아내의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uper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

**MSRP, As shown, MS2132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onda Music, 8-Speakers, 160MPH, 170MPH, 180MPH, 190MPH, 200MPH, 210MPH, 220MPH, 230MPH, 240MPH, 250MPH, 260MPH, 270MPH, 280MPH, 290MPH, 300MPH, 310MPH, 320MPH, 330MPH, 340MPH, 350MPH, 360MPH, 370MPH, 380MPH, 390MPH, 400MPH, 410MPH, 420MPH, 430MPH, 440MPH, 450MPH, 460MPH, 470MPH, 480MPH, 490MPH, 500MPH, 510MPH, 520MPH, 530MPH, 540MPH, 550MPH, 560MPH, 570MPH, 580MPH, 590MPH, 600MPH, 610MPH, 620MPH, 630MPH, 640MPH, 650MPH, 660MPH, 670MPH, 680MPH, 690MPH, 700MPH, 710MPH, 720MPH, 730MPH, 740MPH, 750MPH, 760MPH, 770MPH, 780MPH, 790MPH, 800MPH, 810MPH, 820MPH, 830MPH, 840MPH, 850MPH, 860MPH, 870MPH, 880MPH, 890MPH, 900MPH, 910MPH, 920MPH, 930MPH, 940MPH, 950MPH, 960MPH, 970MPH, 980MPH, 990MPH, 1000MPH

**MSRP, As shown, MS21125**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9" 3-spoke steering wheel, 19" x 20" 2017 wheels

**MSRP, As shown, MS21199**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LED Light,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MSRP, As shown, MS2127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Apple CarPlay, Android Auto, LED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2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42**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얼**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부동산 Agent 그리고 Agency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면 “저도 부동산 에이전트 할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물론이죠!” (“Why not”).

하지만 많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 중개인(Real Estate Agent)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하는 에이전트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자격증(License)은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고 큰 회사(Agency)에 들어가 교육 과정을 철저히 받고 많은 세월을 걸쳐서 경험을 쌓아야 좋은 에이전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Career)를 Remax에서 시작 했습니다.

90년만해도 Remax는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 하지만 에이전트들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회사(Agency)가 중요 한가요?

대부분에 분들은 부동산 자격증만 있으면 다 에이전트인줄 아십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실무 교육과 경험이 중요 합니다.

큰 회사는 에이전트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 시키는 교육부서(Education Department)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

그게 바로 저희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 and Commercial Division입니다.

제가 제 회사를 7년 운영하다가 Berkshire Hathaway와 합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다 좋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를 갖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경험은 많으면 많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꼭 에이전트에게 물어 보세요! 지난 3년간 몇 건의 중개를 하셨나요?

부동산 자격증만 갖고 있고 회사에 소속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7년동안 같이 있으셨던 에이전트분 하나는 7년동안 5건의 중개를 하신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다른 자영업을 풀타임으로 하시는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개를 해서 경험이 있는 지가 중요 합니다.

5. 부동산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에이전트를 고르세요.

바른 에이전트에 선택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르는 방법:**

1.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고르세요.
2. 큰 회사(Agency)에 소속 된 에이전트를 고르세요.
3. 꼭 물어 보세요 중개를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4. 언어 소통에 문제 없는 에이전트를 고르세요.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0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2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궁' 은 남아 있다)

신국의 나라 신라에는 신궁이 있었다. 먼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궁의 내용을 보면 487년 제 21대 소지왕 때 최초의 설립과 제사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같은 삼국사기(제사지)에는 제 22대 왕인 지증왕 때 신궁을 창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설립은 소지왕, 제도적인 정착은 지증왕 때로 절충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제 2대왕 남해왕 3년(서기 6년) 봄에 설치된 시조왕 박혁거세의 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왕의 누이동생 아로가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아울러 화랑세기에는 제 19대 눌지왕이 심황에게 내물신궁의 주(主)신(神官)으로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화랑세기의 필사본이 원본을 복사(필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운데서 신궁에 관한 부분은 재정립을 하여 학습함이 마땅하다. 5세 풍월주 사다함(斯多含) 조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눌지왕이 이에 심황을 명하여 내물신궁(奈勿神宮)의 주(主)로 삼았다. 비지공은 이로써... 내물... 손이다. 묘량부인을 아내로 맞아 비랑공을 낳았다. 묘량... 왕녀이다. 또한 대원신(大元神)에서 나왔다.” (탈자가 많지만 '내물신

제 19대 눌지왕의 재위가 417 ~ 458년이고, 제 22대 지증왕의 재위는 500 ~ 514년이다. 즉 화랑세기의 신궁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그것보다 한 세기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분명 내물신궁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지증왕 때의 신궁과 눌지왕 때의 신궁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즉 신궁에서 제사를 지낸 주(主)신의 정체에 관한 문제이다. 박혁거세설, 김씨 시조설(내물왕), 천지신(天地神)설, 그리고 절충설이다. 이 절충설이 현재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박혁거세가 탄강했다는 나정과 신궁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발굴된 건축물의 구조가 사각형 담장안에 팔각형의 건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아시아 우주관의 구조이다. 그래서 시조뿐만 아니라 천지신에게도 동시에 제사를 드렸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필사본 화랑세기가 위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삼국유사에서 입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김제상(삼국사기에는 박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 가운데 눌지왕이 왜국에 불모로 가있는 동생 미해를 귀국하기 위해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있다.

“나는 비록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일찍이

하루들 잠시나마 (아우를) 잊지 못해 울지 않는 날이 없었소. 만일 두 아우를 만나보고 함께 선왕(先王)의 사당에 고하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갚겠는데, 누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겠소?”

여기에 나오는 선왕은 내물왕이다. 삼국유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내물왕의 사당은 이미 눌지왕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화랑세기 사다함조에서 그의 가계를 기록하면서 내물신궁을 언급하였다. 사다함은 내물왕의 7대손이다 (삼국사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물신궁의 제사를 주관하는 신(神)관(官)의 우두머리가 여자라는 점이다. 신라 초기의 박혁거세 신궁도 그의 누이동생 아로가 제주(祭主)였으며, 내물신궁의 제관 심황도 여자다. 그리고 화랑세기 서문에서 나오는 원화(源花) 역시 여자들이었다. 화랑세기의 서문을 인용한다.

“화랑은 선도(仙徒)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치 연(燕)나라의 동산(桐山), 노(魯)나라의 태산에서 한 것과 같다.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고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었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받들게 했다.”

짧은 구절이지만 화랑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화랑은 신선의 무리이며 그 길을 따르는 뜻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화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우두머리로서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대제를 지내다가 ‘남모와 준정의 사건’ 후로는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화랑(花郎)을 설치하여, 즉 우두머리를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면서 그를 풍월주(風月主)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또한 4세 풍월주 이화랑(李化郎)에도 신궁의 언급이 있다. 해당 부분의 필사본이 훼손되고 탈자가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신(神)은 마땅히 신궁(神宮)에서 발원(發願)하여...” 라는 문구가 뚜렷함을 볼 때 신궁이 신(神)에게 소원을 비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 찰리 박 올브라이트

## Charlie Albright

#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Chopin**  
Ballade


**Kapustin**  
Variations, Op.41

**Albright**  
Improvisation

**Schulz-Evler**  
Concert Arabesques on Themes  
from "On the Beautiful Blue Danube"

**Chopin**  
Etudes, Op.25

2017년 3월 26일(일) 오후 4시  
Pickman Concert Hall at Longy School of Music  
27 Garden St. Cambridge, MA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일반 \$25 / 학생 \$10    티켓 및 상세 정보: (781) 223-4411 또는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동요없는 동포사회를 위한 기고-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게 한해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 - 미주 중앙일보 온라인판 2017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언급된 이민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10여년동안, 여러 법정관련한 일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우가 있다면, 단연코 추방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경우 이기는 경우 물론 이겨서 좋기야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웅담 이겨야 할 것을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일단 지면 추방을 당하는것이 전제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되므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히스패닉분들이 추방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고, 한인 분들은 한 절 반정도가 추방재판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분들은 뉴저지 뉴악 이민법원에서 몇몇 뺏기는 했으나, 보스톤 이민법원에서는 말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을 대리하면서 추방재판에서 추방시도를 중지시키고 또 영주권까지 받게되는 과정을 비추어보면, 2월 28일에 의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관련한 내용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단순 초과체류/범죄기록 전무, 초과체류/범죄기록 유, 경범/중범/비도덕적 범죄]

일단 불체자들은 불법체류사유로 범정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력 범죄가 있던 없던, 경범죄가 있던 없던 말이지요. 이런경우는 이민법원에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은 다시 입국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기에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발적 출

국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게 되고, 정부쪽 변호사들은 추방명령을 이민 판사로 하여금 내리게 할 것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추방재판 진행 시 다뤄볼 만한 케이스]

ICE에 단속 된 외국인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추방재판에 있어 방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변호사의 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 체류기간 및 2. 착한 심성의 증명입니다. 그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3.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1.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입국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비이민비자 입국자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 입국 후 어느 시점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더라도, 자신이 미국에 꾸준히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리스, 렌트, 유틸리티, 셀폰, 차량 명의, 보험, 은행 기록 등 다양한 문건들로 갖출 수 있습니다.

2. 착한 심성

착한 심성은 범죄기록이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특정 기관등에 계시는 분들에게 요청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혹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자신에 대한 증명편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착한 심성이 표현되기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래하시는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을 했더라도,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 왔다면, 이 역시도 착한 심성에 도움이 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미국으로 귀화한 부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본인"의 안녕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므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런 기준을 이해하시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ICE 경찰병력을 대폭 늘려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저와 같은 추방재판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독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지않고, ICE에 단속이 된 불체자들 중 한 50%는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결국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었고, 한인 동포분들께도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얼마전 KBS언론에 보도된 뉴욕 17년 거주 불체자께서 매우 걱정스럽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사면이 일어나지 않는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 역시 위에 말씀드린 1,2 & 3 요건을 검토해 보시면 ICE의 이민단속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 불체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예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공약했던 이민개혁 혹은 예전 1990대 후반에 있었던 대사면을 기대하면서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 한번도 불체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청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ICE의 입장]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단속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할런지 아니면 단속만 하고 지도관찰을 할런지는 그들의 방침이라 제가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DACA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그렇게 기대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오바마 행정부때 적극적으로 DACA 행정명령등을 통해 추방조치 금지를 내린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동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DACA는 한시적인 조치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힘들고 까다롭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DACA가 주는 혜택에 스스로 불체신분으로 된 후 DACA 혜택을 받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토론도 뜨거웠고, 제 클라이언트 중 한분은 실제로 스스로 DACA가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DACA가 추방재판을 통해 유예를 받고 나아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불법체류자들까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고 한시적인 위안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ICE에서 이민법원에 세워 추방재판을 진행할 경우, 비로소 위의 세가지 요소를 갖춘 외국인들은 추방재판에 대응하여 영주권을 받는길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안]

즉, 이민법은 오랜 기간동안 큰 변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면서 행정명령들이 있어왔고, 언제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추방유예 및 영주권자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E에서 굳이 범죄경력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은 애초부터 반반이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방재판에서 유예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이민법원에 청원을 하여, 1. 스스로 불법체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2. 현 이민법상 존재하는 유예방법을 통해, 3.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식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민 사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납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트럭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amil.com](mailto:autobody.hk@gamil.com)

# 2017 신년 봄맛이 강원 웰니스 식품 보스톤 특판전

## Korea(Hoengseong) Food Sales Festival

강원도 횡성군에서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2개 업체에서, 130여 품목을 준비 했습니다.



### 2017년 3월 23일(목) ~ 3월 26일(일)

- 장소 : 155 Parker St, Lawrence, MA 01843
- 주관 : 미동북부 강원도민회      ▪연락처 : 732.513.4369
- 주최 : (사)횡성군 가공식품수출협의회

#### [횡성군 협력 업체]

앤초이스, 예향식품, 서원농협, 청아굿푸드, 산골농장, 만나라,  
산내마을, 옥두식품, 밀원, 청태산농장, 참살이, 산들누리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 “MIT, 그리고 전략의 중요성”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회의실에서 수많은 낮과 밤을 지새며 누구를 입학시키고,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역시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원서 내용과 더불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수많은 지원서를 검토해 본 필자가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세상 돌아가는 법에 대해 너무 순진하거나 경험이 없고, 나아가 자신의 지원서에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들을 포장하고 선전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각 대학이 특별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대학이 나름대로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학 지원자는 각 대학에 맞춰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에세이나 기타 자료들을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MIT는 매우 특별한 학교로서 자신들이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독특한 성격과 특징이 있다.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인 MIT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단순히 따라가는 학생이 아니라, 평범함을 넘어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나아가는” 비범한 학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 학교 스튜 슈밀(Stu Schmill)

입학처장이 밝히고 있다. MIT가 특별히 수학과 과학 영역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원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MIT 학생들이 다재다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MIT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이 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포츠에도 뛰어나서, 학교 대표 운동 선수들과 유명한 음악가들도 매우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학교 입학생 가운데 49%가 여학생이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

MIT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수 년간 재임했던 필자는 MIT가 어떤 종류의 독특한 학생을 원하는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옥수수에서 종이를 대량생산하는 법을 배웠던 네브라스카 출신 남학생, 7학년 때부터 나사(NASA)에서 “우주 음식” 연구를 지속해 왔던 텍사스 출신 학생, 동네 맥도날드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던 시애틀 출신 여학생. 어떤 공식도 없었고, MIT 지원자라 어떤 전형도 없었다. 우리는 단지 똑똑하고, 흥미로우며, 독창적이고, 신선하며, 열정이 넘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찾았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패, 즉 자신들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의 경험을 자신의 에세이에 썼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한 교훈 때문에 얻게 된 놀랄만한 성품과 사

의 깊이, 그리고 끈기를 보여 주었다.

매년 MIT는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가장 먼저 발표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3월 말이나 4월에 하는데 비해, MIT는 합격자를 정확히 “파이(//, 3.14 데이)”, 즉 3월 14일, “타우(Tau) 시간” 인 오후 6시 28분에 발표한다. 올해 MIT는 지원자 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20,247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지 1,438명만이 합격하였다. 사실 조기지원에서는 명문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합격률인 8%를 기록하였다. 8,394명 중에서 657명만 합격하였다. 조기지원 합격률의 경우, 하버드와 프린스턴이 15%였고, 브라운과 펜이 22%였는데 비해, MIT의 8% 기록을 비교해 보라! 규모가 작은 대학인 MIT는 매년 신입생 규모가 1,1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코넬대학은 신입생만 3,200명이 넘는다.) 하버드나 스탠퍼드와 비교해서 MIT의 지원자 수는 적은데, 이는 이 대학이 좀 더 특수화된 대학으로서 전 세계에서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이 대학역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올해 MIT 조기모집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조기 지원 합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미국내 명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이 합격하기는 실제로 훨씬 어렵다. MIT의 경우 외국인 학생 합격률이 자국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훨씬 낮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합격률이 8.4%인데 비해 외국인 학생들의 합격률은 단 3%였다.

무엇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간에 결국은 지원서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지원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과 업적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합격하기 어렵다.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막상 지원서를 통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합격하지 못하는 안타깝고도 슬픈 순간들이 많았다: 그들의 에세이는 재미없고 식상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과외활동 내용도 어떤 분명한 방향성이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필이 마구잡이고, 분명치 않으며,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이 없음이 분명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지원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신을 아주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게 하는 설득력있고 효과적인 지원서를 만드는 전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간과하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7)

# '투자자를 위한 법안' 연기

일반 투자자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재정설계사'라는 비슷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에 대한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기에 듣기 좋고 믿을 만한 직함으로 소개하지만, 재정설계사는 크게 두 종류의 재정설계사로 나누어집니다.

**\* 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Fiduciary” 의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Investment advisers must put their clients' interest ahead of their own financial gain.)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RIA 재정설계사는 정부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

sion and State Securities Regulators)에서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Stock Brokers & Insurance Agents:**

주식브로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인, 은행, 등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법적인 Fiduciary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적당한(Suitability) 의무만 있으면 됩니다. 주식브로커와 은행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돈을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보험인은 수수료가 높은 어뉴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종목에 투자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2016년 미국 노동국(DOL, Department of Labor)의 노력으로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재정설계사는 Fiduciary(신용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전대로라면 올해(2017) 4월 10일부

터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명령으로 60일간 지연된 상태로 결국에는 법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관과 재정설계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만 영어로 직접 소개합니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Insured Retirement Institute), (National Association for Fixed Annuities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Indexed Annuity Leadership Council).

Fiduciary' 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 실제 '반대 이유' 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소송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설계사를 감독하는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많은 숫자의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이익에 막대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한푼 한푼 벌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 적당한 의무만이 있는 재정설계사는 약 650,000명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재정설계사는 약 3,000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를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How to Get Conflict-Free Retirement Advice, WSJ, February, 10, 2017)

'Fiduciary' 가 있다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교육비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사례) 부양가족대상인 대학원생 아들(26세)과 대학생 딸(21세)을 둔 김한국씨의 2016년도 소득이 \$150,000입니다.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김한국씨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규정이며, 다른 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입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대학교 4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4년 초과 연도나 대학원 교육비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의료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학생별로 계산되는데, 공제대상 교육비(최대 \$4,000) 중 처음 \$2,000은 100%, 그다음 \$2,000은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500(=\$2,000 X 100% + \$2,000 X 25%)입니다. 이 중 40%(최대

\$1,000)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액(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규정은 납세자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이면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MAGI가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되므로 이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신고를 하면(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으로 '세금신고서 1건당(Per Return)' 최대 \$10,00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1건당(Per Return)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10,000 X

20%)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학생당(Per Person)'한도를 정하는데 반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한도를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 세액공제를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공제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은 납세자의 MAGI가 \$55,000 ~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10,000 ~ \$131,000)사이에서는 삭감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MAGI가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31,000)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김한국씨의 사례검토

자, 그럼 위 김한국씨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학원생인 아들(26세)의 교육비를 보면

- ① 아들이 대학원생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

으면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적용안됨).

③ 그런데 김한국씨의 경우 아들의 교육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적용되더라도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31,000을 초과하므로 Phase-Out규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됩니다.

④ 결국,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를 보면,

- ① 딸이 대학생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다음으로 Phase-Out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60,000에 미치지 못해 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따라서 김한국씨는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딸에 대한 교육비는 Lifetime Learning Credit도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김한국씨의 소득이 \$131,000을 초과해 Phase-Out 규정에 의해 모두 삭감됩니다. 만약 동일한 교육비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동시에 적용 가능하면,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중복적용 안됨).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임대, 상속, 증여 결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감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 왜 메디케이드(매스헬스)에 쌍심지를 켜나?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망가진” 건강보험 제도라고 주장하던 공화당은 이번 오바마케어 폐기/대치 법안에 개정조항을 포함시켰다. MA주에서는 “매스헬스”라고 부른다. 이 정부보험은 극빈자와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무료보험으로 전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7천만이다. (18세미만 아동 3,200만, 64세까지 성인 2,000만, 시니어 700만, 장애인 1,000만) 이는 총인구의 23%로, 매년 무려 5,320억 불이 든다. (연방정부 3,340억 불, 50개 주 정부 1,970억 불/2015년도). 보험개정은 정부재정과 가입자에게 영향이 매우 커 공화당은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가상적인 흥부네와 놀부네에서 살펴보자.

흥부네는 청소년을 10여 년을 하다 힘들어 65세에 은퇴하였다. 수입은 부부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월 2,000불이 전부다. 수입액수가 매스헬스 가입자격 소득보

다 높아 가입이 안 된다. 다행히 10년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내었기에 메디케어에 가입되었다. 건강관리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웬걸 메디케어 월 보험료 각각 134불 과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 약 100불씩, 부부 보험료가 모두 월 470불 정도 나간다. 남은 1,530불로는 빠듯하다. 게다가 병원에 가거나 처방약을 사면 코페이, 디덕터블까지 자기 부담이다.

놀부네는 늦은 나이에 이민을 왔다. 나이도 있고, 언어도 어려워, 직장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세금을 낸 적도 없다. 한국 재산과 수입과는 무관하게 미국에서는 극빈자다. 노인아파트와 푸드스탬프도 받는다. 5년 거주하며 시민권도 얻게 된다. 65세가 되면 SSI로 월 1,000불 정도가 은행구좌에 입금된다. 물론 매스헬스 카드도 나왔다. 월보험료 없고 코페이, 디덕터블도 없는 무료 건강보험이다. 의사, 병원도 마음대로 간다. 때론 1,000불

이상 드는 응급차도 걱정 없이 부른다. 녀석하지 않으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위의 예에서 제도적 불합리와 모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금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극적인 가상 예를 들었다.)

MA주에서는 64세까지의 4인 가족 년 소득이 32,718불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부부면 월 소득이 1,374불 미만이면 매스헬스에 가입 신청이 된다. 비용이 년 155억 불(연방정부 87억 불, 주 정부 68억 불)로 가입자 한 명당 약 8,000불 정도다. 혜택을 받는 수가 200만 명이다. 이는 7백만 주민의 25%가 더 된다. 네 사람 중 한 명은 이 무료보험에 들어 있는 폭이다. 세 사람의 세금으로 가입자 한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처럼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점 이외에 메디케이드는 비용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즉 가입자가 쓰는데로 정부가 대준다. 과용, 남용, 부정도 적지 않다. 그러니 비용상승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국가

부채도 악화시켰다. 게다가 일부 수혜자는 메디케이드를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 앞가림은 제가 하여야 한다”는 정치이념의 공화당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납세자는 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자 이 “열린 금고” 문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개정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리 산정된 액수만을 주 정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년 증액 폭도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로 하였다.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주 정부 부담이 커져, 주 정부는 가입자수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혹 가입자가 일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 빚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상반되는 중대 안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이 안을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정치 태풍에서 어떤 결말이 날런지 큰 관심사이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 소식 (2017년 3월 셋째주)

#### ● H-1B Updates

어제(3월 15일) 이민국은 올(2018회계년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3일 이전에 도착되는 모든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되고 반송됩니다.

예년과 큰 변동없이 6만 5천개의 일반 H-1B와 미국 대학원 학위자에 대한 별도의 2만 개의 쿼터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되는 H-1B 시즌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최근 LCA(H 신청서에 같이 동봉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기각이 예년보다 많은 것 같고 예년에는 인정됐던 사소한 실수들도 각각의 사유가 되고 있으니 LCA 신청 시 많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 달라진 점들:

- 급행신청: 먼저 H에 대한 급행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는 급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료의 변동: H신청서인 Form I-129에 대한 신청료가 기존의 \$325에서 \$460로 인상됐습니다.

#### 주의하실 점들:

- 위에서 말씀하드린대로 최근 이민국 경

향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크로 보내는 신청료의 작성도 실수 없이 잘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신청료는 하나의 체크보다는 각 신청료의 금액을 적어 따로 따로 작성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체크에 날짜, 서명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국은 수수료(Fraud Fee)는 반드시 별도의 체크로 보내라고 했으며 모든 금액을 하나의 체크로 보내면 안됩니다. 수신자도 국토안보부로 명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사항들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빈칸으로 남겨두시지 말고 N/A(Not Applicable) 또는 None 등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신청서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두 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자가 일하게 될 장소에 따라 신청장소가 결정되니 두 군데 중 어디다 보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LCA를 제외한 모든 신청서의 서명(사인)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4월에 하지만 H의 시작일은 10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시작일(Petition Start Date)이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복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복사본을 같이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 올 5월 졸업예정자: 이런분들은 반드시 3월 31일 현재 학위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이러한 서류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졸업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의 편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Dean, Registrar 또는 Department Head 라는 직함이 있는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받은 편지를 동봉한 신청서는 기각(Denial)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반납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올해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4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분명히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모든 신청서들은 모두 반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4월 1일 아니라 4월 3일입니다.

- 중복 신청서: 추첨을 대비해 똑같은 신청서를 중복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기각한다는 방침을 올해도 상기 시켰습니다. 최근 몇년간 교묘하게 중복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이러한 신청서들을 색출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 OPT 기간 중인 F-1: 예년과 같이 H-1B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OPT 신분자들은 (만료일이 4월 3일 이후)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만료가 되더라도 H가 시간 내에 신청되면 9월 30일 까지 OPT가 자동 연장되며 노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첨: 4월 3일부터 5일간 서류접수를 합니다. 4월 8일 이민국은 그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숫자에 따라 추첨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올해도 추첨이 있을거란 예상이 절대적입니다. 참고로 작년엔 5월 2일(2016년) 추첨을 마치고 모든 데이터 입력이 완료됐으며 7월 8일까지 추첨에 떨어진 모든 신청서에 대한 반응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몇 주 서류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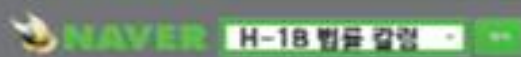
# SONG LAW FIRM

##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위대인, 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위대인, 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니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http://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피자/아이스크림 연매상 \$600,000 이상 단독건물  
좋은 매매가격 \$160,000 변화한 지역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0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아카데미 프로그램

### 1. Weekend Program:

SAT I,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교육경험 완성

###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차게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설머캠프 활동

##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얻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9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 9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